

꿀스터와 잼스터의 모험: 귀중품 되찾자들

1장. 잼스터 인사하기

어느 여름날에 **악취**라는 천 흘러 지나는 숲속 잔디밭에서 귀여운 검은 코가 덤불 밖으로 엿보았어요.

조심스럽게 킁킁거리어서 온 작은 동물이 서서히 엿보았어요. 두꺼운 눈썹을 찌푸려서 그 숲 주민은 햄스터, 기니피그, 다람쥐, 모든 쥐를 닮았어요. 누구나 그를 본다면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예요. 지금까지 아무도 본 적 없는 **잼스터**라는 희귀종 중 하나였기 때문이었어요.

잼스터는 안경을 손으로 고쳤어요. 그가 안경을 나무 아래에서 얼마 전에 발견했었어 쓸 때마다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모양에 노란 셔츠와 오렌지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뒤에서는 여우처럼 폭신한 꼬리가 흔들렸어요. 잘생긴 젊은이는 **폭시**라고 불렀어요.

폭시가 다시 눈썹을 움직자 소마누 그루터기 위에 올라 달렸어요.

“대박! **뽕뽕**아, 그거 해 봐!”

두번째는 폭시에게 강충강충 뛰어 들었어요. 그는 또한 밝은 옷을 입고 폭신한 꼬리도 있었어요.

폭시와 뽕뽕이 잔디밭에 쉬고 있는 인간 가족을 즐겁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특히, 아이가 가지고 노는 플라스틱 트럭.

뽕뽕은 놀라서 “편범한 트럭 아니라 몬스터이지!”라고 응답했어요. 폭시는 공상을 시작했어요.

“우리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등에 물건을 지고 다닐 필요가 없겠어.”

그렇게 말하자마자 공상적으로 사모했어요. 큰 소녀가 온 하늘을 차단하고 꽃을 짓밟으며 잼들의 방향에 달리어서요.

잔디밭에서는 아빠, 엄마, **빅터** 아들, **소피**라는 딸의 네 명이 있었어요.

아빠는 낚시를 하고 있고 엄마는 책을 읽는 사이에 자식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뛰어다니고, 시끄럽게 노는 등 또래 아이들이 자연에 좋아하는 게임을 해서 바빴어요.

소피는 친절하고 자연과 동물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애완견을 키우고 싶어 했어요. 부모님에게 자꾸 강아지를 사달라고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두 마리 이상 받으면 아주 좋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살고 있는 아파트는 너무 작았어요. 하루에 두 번 이상 산책시키고 먹이를 주고 모피 때문에 집을 청소하며 강아지에게 백신을 맞혀야 해서 너무 번거러웠어요. 소피가 다 혼자 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부모님은 누가 실제로 그걸 할 것었지 잘 아시고 있었어요. 따라서 강아지 대신에 햄스터, 앵무새, 금붕어를 사 주기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생일이 났을 때는 엄마가 소피에게 “이 동물들 잘 키우면 강아지도 사 줄 생각할게.”라고 말하시며 애완동물을 넘겨 주었어요.

오늘 여행은 가족이 햄스터만 가져왔는데 소피가 햄스터 케이지를 물가에 있는 풀밭에 놓았어요.

소피는 햄스터에게 ‘햄미야, 얼마나 아름답든지 해 봐!’라고 웃었어요.

“어어, 그렇군요. 실례지만... 집에 돌아갈 시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한 햄스터는 경치에 관심이 별로 없었지요.

햄미는 집 사랑하는 햄스터이라서 야외 활동을 좋아하는 커녕 자연도 무서워 해서 밖에서 스트레스만 받았으니까요.

“햄미야, 여기 좀 기다려. 내가 놀러 가야겠어. 경치 만끽하라!”

소피는 그를 말하기 무섭게 뛰어 도망쳤어요. 햄미는 주인이 도망치는 것을 보면서 완전히 혼자 남았어요.

‘치즈 원해!.. 헐, 치즈 하나도 없군.’라 생각하는 햄미는 외롭게 포기했어요.

그가 모든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지요. 슬프게 누워서 쳇바퀴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치즈에 대한 생각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오후에는 아빠가 낚시미끼를 다시 한 번 확인하려다가 하늘을 올려다보고 거대한 먹구름을 발견했어요. 가족이 모두 비에 젖기 전에 집에 빨리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빠는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해서 짜증이 났기 보다는 비를 피하고 싶어 했어요. 아이들은 마지 못해 비가 심각한 문제라는 데에 찬성해서 모두가 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빅터와 소피가 장난감을 모으는 사이에 부모님은 포장해서 차에 싣고 있었어요.

“아빠, 내 트럭 못 찾겠어요.”

빅터가 계속해서 주변의 풀에서 트럭을 찾아보았는데 누나에게서 놀림을 받았어요.

“넌 어설피군.”

소피는 웃으며 인형을 땅에서 모으고 있었어요. 그런 말은 빅터를 화나게 했지요.

“그렇게 말하지 마. 여기서 있었던데!”

아들은 덤불속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는 킬킬 웃고 아빠에게 윙크하셨어요.

“그럼 꿀스터들 흠졌겠어.”

아빠는 엄망의 농담을 계속하셨어요.

“잼스터 아닐까?”

비에 젖으니 차라리 트럭 없이 집에 돌아가는 데가 낫다고 생각한 아빠가 딱 급해졌어요. 빅터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무슨 소리에요?”

소피는 인형에서 풀을 털어 내서 궁금해 해졌어요.

“엄마, 잼스터는 뭐예요?”

“잼스터는 숲에 살고 있는 동물이야. 햄스터처럼 작아서 잼-스-터-라고 불러.”

아빠가 그렇게 응답하셔서 빅터는 찾는 것을 멈췄어요.

“아빠, 잼스터는 뭘 해요? 어떻게 보여요?”

“그는 숲속에서 살고 있는데 본 적 있는 사람 거의 없어. 다람쥐 비슷한 꼬리랑 귀에 솔 있고 폭신한 동물이라.”

엄마는 아빠의 말에 더해서 ‘근데 잼스터 하는 일은 다 물건 훔치는 거래.’라고 그랬다.

“잼스터는 보통 햄스터나 다람쥐를 닮고 귀여운 셔츠에 짧은 바지를 입고 사람이나 동물의 말을 할 수 있다. 멋진 생물이야 안 그래?”

그렇게 말하신 아빠는 트렁크 안에 음식이 든 바구니를 넣고 닫았어요. 소피는 엄마에게 물었어요.

“그럼 꿀스터는 뭐예요?”

“꿀스터는 잼스터 같은 종류인데 그냥 ‘꿀-스-터’라는 마을에서 온대. 꿀스터도 물건 훔쳐. 잼스터처럼 잊어버린 것이든 두고 간 것이든 다 훔칠 거래.”

“그럼 잼스터나 꿀스터 어디 볼 수 있는지 아세요?”

트럭에 관심이 별로 없어진 빅터는 그 동물에만 궁금해했는데 아빠가 웃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왜요?”

빅터는 너무 실망해서 다시 한 번 덤불을 보고 터덜터덜 자동차로 갔어요. 엄마는 식탁보를 접으면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아빠 말은 잼스터랑 꿀스터가 존재하지 않고 그냥 동화 캐릭터라는 의미해.”

아빠가 찬성하셨어요.

“맞아. 사람들이 물건 잃어버린 못 찾을 때 책임 지기를 싫어해. 그래서 “아, 잼스터가 도둑질했어” 또는 “꿀스터가 훔쳤어”라고 그래.”

그런 이야기는 가까워 듣고 있는 폭시와 뽕뽕을 찬물끼었다는 듯이 충격을 줬어요. 뽕뽕은 딸꾹질을 하면서 ‘방금... 뭐라고? 도둑질했다?... 흠... 흠쳤다? 딸꾹.’라고 했어요.

풀은 셔츠에 빨간 멜빵반바지를 입고 있는 뽕뽕은 아주 귀여운 변이었어요. 귀와 꼬리에는 술, 척추를 따르는 검은 줄무늬, 밤 털, 하얀 배 등이 멋진 색이었는데 지금 화가 때문에 등털은 짙은 회색으로 바뀌었어요. 또한 척추를 따라 검은 줄무늬가 있고 귀와 꼬리에는 술이 있었어요. 그 날에 뽕뽕은 풀은 셔츠에 빨간 멜빵반바지를 입고 있었군요.

“무플”

폭시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무플.”

깜짝 놀란 잼들은 큰 한숨을 쉬었어요. 얼굴에서 손을 떼자 갑자기 천 주변에 케이지를 보았어요. 케이지 안에서 잼스터 닮은 생물이 눕고 너무 슬퍼 보였는데요.

그 것을 보니 잼들이 바로 케이지로 달려갔어요. 때때로 풀에 숨어야 했는데도 마침내 도착하게 되었어요.

뽕뽕이 케이지를 손으로 천천히 만져서 불렀어요.

“저기요.”

햄스터는 소리를 무서워 해서 비명을 질렀어요.

“아아! 누구야?”

“당신은 누구예요?”

“저는... 햄미라고 해요.”

햄미는 걱정해서 입이 말랐어요.

‘아이고! 오늘 집에 있을 걸 그랬다! 침대 밑에 숨었어야 했는데... 그들이 나를 지금 먹을 것 같아! 엉엉... 로지, 내 최친구야. 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해서 미안.’라는 생각이 나왔어요.

“저는 뽕뽕이에요. 악수할래요?”

잼스터는 상냥한 표정으로 케이지 안에 손을 뻗었어요.

‘안 돼! 아이고, 어찌지? 날 죽일 것 같다!’라는 공황 생각이 생겼는데 뽕뽕은 서둘렀어요.

“하자, 괜찮아!”

“끼익!”

햄미는 떨며 바닥에 쓰러져서 죽은 척했다는데 뽕뽕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래?”

햄미는 몇 분 더 죽은 척 계속했는데 마침내 눈을 조금 뜨며 말했어요.

“제발! 저를 먹지 마.”

“말도 안 돼! 너를 먹느니 차라리 굶겠어.”

“진짜?”

잼스터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그럼 말했어야 했잖아. 예의 없군!”

뽕뽕은 놀라서 ‘죄성합니다’라고 했는데 햄스터는 이러나지 않고 말했어요.

“난 햄미 햄스터인데.”

“나는 뽕뽕 잼스터야. 여기서 뭐 하고 있어?”

햄미가 똑똑해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치즈를 공상했어. 집이 너무 그리워.”

“그래... 나는...”

뽕뽕이 소년이 케이지에 가깝게 너무 오는 바람에 말을 끝냈는데 덤불로 강충강충 도망 갔어요.

“여기서 살며 일하고 해... 지금 가야겠다! 곧 봐!”

햄미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음엔 더 좋기 바라... 혹시 내 집에 올래?”

소년이 여전히 풀밭에서 트럭을 계속 찾아보았어요. 엄마는 걱정해서 불렀어요.

“아들이야, 트럭을 못 찾으면 괜찮아. 다음에 조심해야 돼. 애들아, 차에 지금 타. 비 곧 올 테니까.”

아빠는 문을 열어서 차에 타라고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운전대 뒤에 앉아서 시동을 걸었어요. 잠시 후 모두가 차를 타고 앉았어요. 문이 닫히자 차는 매연을 내뿜며 동네로 다녀갔어요.

엔진 소리가 조용해졌을 때 잼스터가 풀을 옮겨서 다시 왔어요. 나무 그루터기 위에 올라가서 이마에 손을 잡아 왼쪽과 오른쪽을 바라보았어요. 그 몸짓은 필요없지만 땡땡은 그렇게 하는 인간들을 아주 모방하고 싶어 했어요.

잼스터가 인간 가족이 멀리 갔다는 것을 화긴해서 휘파람을 불었어요. 노란 셔츠와 오렌지 바지를 입고 있는 친구가 소리를 들어서 나타나서 땡땡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어요.

2장. 폭시와 뽕뽕

뽕뽕이 내려갔으나 그 친구는 위로 올라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폭시야, 다 갔지?”

“응, 다 갔어. 진짜 무례하네! 우리 옛날부터 도와주는데 인간들은 감사할 줄 몰라.”

폭시가 잔디밭을 볼수록 화 때문에 꼬리는 더 떨리고 있었어요. 이성을 잃어서 잔소리를 했어요.

“저희는 잃어버린 귀중품을 되찾는 위대한 잼스터족이야. 수년 동안 나란히 살고 인간에게 도움에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들의 불행에 잼스터를 부당하게 탓으로 돌리는 거야!”

폭시의 어휘는 대단해서 언어 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지요. 안경도 어느 때보다 그를 똑똑해 보이게 만들었어요.

“인간은 무언가를 잃어버릴 때 왜 잼스터가 그걸 훔쳤다고 하겠어?”

“맞아. 사실이 그건 잼스터 잘못이 아니라 그들 잘못이잖아!”

“응.”

“자, 내려. 잃어버린 귀중품 찾으러 가자... 근데 인간 가족이 의논했던 꼴스터들 알아?”

“글쎄. 들어 본 적이 없어.”

폭시는 어깨를 으쓱해서 덩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인간 아이가 찾았던 트럭을 밖으로 밀었어요.

“엄청나! 그동안 거기에 있었는지 어떻게 알았어?”

“난... 그냥 알았어.”

폭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는데 뽕뽕은 진정한 답을 추측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일부러 숨겼지?”

“응. 인간 아이가 안 보는 숨겼어. 마을은 너무 멀고 물건을 등에 가져가는 걸 아주 싫어했거든. 이 트럭은 좋지 않아?”

폭시는 자랑스럽게 말하며 트럭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트럭을 타고 마을에 들어오는 것에 신나졌지요. 그는 여자들이 꼬리를 흔들고 감탄하는 공상을 했는데 가장 예쁜 여자에게 태워 주고 함께 일몰을 감상하는 것에 꿈을 꿨거든요. 청바지를 입으면 아주 멋있어 보이겠다고 생각도 해서 “진짜 멋져 보일 거야”를 중얼중얼 했어요. 그러나 뽕뽕이 그 꿈을 방해했어요.

“이건 도둑질이야! 장로들이 우리를 보물 찾기로 징계하실 거야!”

“글쎄... 아무한테 말 안 할 거지.”

“그렇군. 잘 계획했네!”

뽕뽕은 짜증나게 돌아서 인간 가족이 쉬고 있었던 잔디밭으로 떠났어요.

폭시는 뽕뽕을 따라 터덜터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몇 분 만에 친구들은 싸움을 잊어버려서 풀에서 물건을 뽑아 가지고 트럭 뒤에 즐겁게 싣고 있었는데요.

찾은 보물 중에서 브로치, 동전 3개, 손수건, 사탕이 있었는데 사탕은 즉시 먹혀서 포장지가 트렁크에 던져졌어요. 다음에는 잼스터들이 마을에 가려고 트럭을 숲길로 밀었어요.

‘부릉부릉.’ 폭시는 엔진 소리를 흉내내며 두 친구들이 트럭을 언덕 정상에서 아래로 끌고 갔어요. 트럭이 굴러 떨어지는 동안에 그들은 안에 급히 뛰어 들었는데 ‘부릉부릉’을 반복하며 마을로 가고 있어요.

그들이 마을에 가는 길에 도랑으로 미끄러졌을 뿐만 아니라 덩불속에도 몇 번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한 번 뒤집히며 나뭇가지 위에서 즐고 있는 까마귀를

겁주었어요. 교통사고에서 다치지 않고 비웃고 있는 잼들은 트럭을 바퀴로 뒤집어 나서 마을로 계속 갔어요. 드디어 한 시간 만에 도착했어요.

3장. 잼스터 마을

잼마을은 계곡에 있었는데 바위가 적으로부터, 언덕이 바람으로부터 보호해 줘서 모든 면에서 잘 보호되어 있던 마을. 거기에서는 약 50채의 구멍 집이 있고 200여 명이 살고 있는 주민이 약이었어요. 좁은 입구에는 경비원 두 명이 지키고 있었지만 장소를 지킬 필요가 없었어요. 인간은 그 마을을 못 찾는 반면에 다른 숲 주민들은 우호적이거나 중립적이었거든요.

‘부릉...부릉.’ 피곤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 뽕뽕과 폭시는 트럭을 마을 입구에 밀어 내고 있었어요. 구불구불한 도로 때문에 지난 30분 동안 그렇게 해야 했으니까 너무 지쳤어요.

뽕뽕은 폭시에게 농담으로 물었어요.

“아직도 운전자가 될 계획이지?”

폭시는 포기하지 않고 ‘부릉’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오케이. 이제 직접할래?”

뽕뽕이 폭시의 어깨를 두드리고서 부드러운 풀밭에 대자로 뺨어버렸어요.

‘부릉...부릉.’

폭시는 신음소리를 내서 트럭을 중앙 광장에 밀고 있었는데 뽕뽕은 풀밭에 누우면서 격려했어요.

“화이팅! 넌 할 수 있어!”

폭시는 발이 아무리 떨리는데도 트럭을 밀으려고 노력했는데 어찌나 지쳤는지 마을 주민들이 동정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을 신경쓸 수 없었어요. 마침내는 트럭을 광장 가운데에 밀어 냈을 때 그가 트렁크로 뛰어 들어서 대자로 뺨었어요. 그렇게 즐다가 지나가는 잼스터에게서 끊임없는 질문을 받기 시작했어요.

“뭘 가져왔나요?”

높은 실크해트를 쓰고 있는 잼스터가 대박을 보려고 멈춰서서.

“보물이죠.....”

“그래요. 자동차는 어디에 찾았나요?”

불쌍한 폭시는 피곤하다 못해 모국어도 못했지요. 그냥 중얼중얼 말했어요.

“왜요?”

“내가 뭐라 했지? 부끄러울 줄 알았어!”

그렇게 말한 뽕뽕은 감아서 집에 갔어요.

“응.”

폭시는 응답하자마자 코골이를 시작했어요.

다음 아침에는 상쾌하고 기분 좋게 일어난 뽕뽕이 집 밖으로 나갔을 때 중앙 광장에서 소란을 보았어요. 주민들이 회의를 준비하는 모양이었어요. 그 순간에 지나가는 잼스터 엄마와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엄마, 엄마! 회의에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폭시 씨는 차를 훔친 탓에 야단을 맞을 거 같아.”

뽕뽕이 걱정해 자신에게 말했어요.

“오, 정말..... 엄격하네.” 그런 식으로 해서 광장에 향했어요.

한 시간 지났지만 장로들과 주민들은 폭시의 범죄에 대해 여전히 토론하고 했어요. 광장가운데에서는 폭시가 훔친 트럭 옆에 앉아 있고 너무 슬퍼 보였다. 회의 의장은 법복에 하얀 가발을 쓰고 앉았어요.

“폭시야, 부끄러운 줄 알아!”

의장이 화가 나서 의사봉을 두드렸어요.

“어쨌든... 줌보 씨는 폭시 씨를 오랫동안 알고 있으며 폭시 씨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니까 줌보 씨를 폭시 씨의 변호사로 지정합니다. 이번에는 폭시 씨가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처음이 아니지만 무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중이 야유했어요.

“야! 참교육 당해볼래?”

“노동 치료에 보내세요.”

콧수염이 난 신사가 제안했어요.

“역겹다! 나무 수지와 솔잎에 잘 굴러서 찹찹에 씻어냅시다. 그 다음에 가지를 모아러 이 주 동안 북부 숲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의장은 의사봉을 다시 쳤어요.

“여러분 행동을 조심해주시요! 시끄럽지 마시오...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을 대표하시는 분은 최고 장로 뽕뽕 왕입니다.”

소수만이 건성건성 박수를 쳤어요.

뽕뽕은 잼스터 최고 장로들 중에 가장이었어요. 잼스터들이 부적으로 결정을 내리니까 가장 소리가 높고 반발하고 시끄러운 회원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뜻. 그러나 잼스터족은 숲왕국이라서 공식적으로 잼스터족의 통치자는 뽕뽕 왕이었어요.

뽕뽕은 이미 너무 늙어서 그의 업무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 행렬에 손을 엄숙하게 흔드는 것, 축제에 건배하는 것 등 쉬운 업무였어요. 그런데 그 축제에 꿀소다 두 잔 후 항상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서 즐기 일수였어요. 늙은 뽕뽕은 무해하고 공정한 왕이라서 잼들이 그를 좋아해서 옛날 귀여운 전통처럼 보호하고 있었어요.

커피를 그만했고 아침 운동을 꾸준히 하던 뽕뽕은 그 날에 힘이 아주 많아 보였어요. 그렇게 신나서 이야기에 매우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폭시의 범죄에 대해 들었더니 즉시 검찰을 대표하며 주민들에게 정의를 가르치고 싶어 했는데 그가 관중에 둘러싸여 지팡이를 들고 가끔 흥분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바닥은 검찰에게 주어집니다.”

“쿵!”

“나는 인간이 잼스터들이 도둑이라고 생각하도록 놔두지 않겠소!”

엄숙하게 말한 뽕뽕 왕은 지팡이를 흔들었어요. 관중이 일치하게 찬성했어요.

“맞네, 맞네!”

“우리가 인간을 위해 수세기 동안 도와줘 왔으며 인간의 귀중품과 물품을 찾아가져왔소. 그러니까 흠치면 절대 안 되요!”

폭시는 그 말을 들어서 더 우울하다고 느꼈어요.

“요컨데, 내 명제는 폭시 씨가 상습범으로서 한 달 동안 보물 찾기로 징계한다는 명제요.”

관중이 시끄럽게 토론을 시작했어요.

“바닥은 변호에게 주어집니다.”

“쿵!”

카리스마 넘치는 폭시의 단짝 줌보가 시작했어요.

“폭시 씨가 확실히 유죄이라서 벌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그렇게 엄격한 벌을 주지 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아주 후회하고 불법을 절대로 안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맞지요, 폭시 씨?”

트렁크에 아직도 숨어있고 죄책감이 드는 폭시는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렇게 끄덕이다 보니 멈출 수 없었지요. 그동안 토론은 심하게 되었는데 일부 잼스터가 뽕뽕을 지지했는 반면에 대다수는 줌보를 지지했어요. 의장이 무서워 하는 폭시를 보다 말했어요.

“폭시야, 왜 이렇게 끄덕이지? 계속하면 머리가 빠질 지도 몰라!”

관중에게 다시 연설했어요.

“어쨌든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리겠는가?”

“나무 수지에 굴려서...”

콧수염이 난 신사가 말을 시작했다가 방해를 받았어요.

“야! 그만해라!”

뚱뚱하고 얼굴이 넓은 잼스터가 관중에서 나왔어요. 뺨을 움직이고 크게 숨을 들이쉬었으며 그랬어요.

“위대한 잼스터족의 결정은 폭시 씨를 십육 일 동안 보물 찾기로 징계한다는 결정입니다.”

“역시 나무 수지에 굴려...”

“닥쳐 제발!”

“알겠습니다. 폭시 씨를 십육 일 동안 징계합니다. 결정이 내려져서 회의가 종료되었음을 알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공고한 의장은 마지막에 의사봉을 쳐서 손을 흔들었어요. 의사봉이 너무 무거워서 손이 아파졌어요. 주민들이 평결에 대한 토론을 계속해서 몇 시간 후 집으로 흩어졌어요.

창피한 폭시는 트렁크에서 땅에 내렸어요. 기다리던 친구들은 단짝을 인사해서 어깨를 동감적으로 두드렸어요. 그는 잘못해서 지금 다른 할 일이 없었어요. 우울한 잼스터는 고개를 숙인 채 터덜터덜 갔어요. 조금 후에 그가 뽕뽕과 함께 찾은 보물을 장로에게 가져왔어요.

집에 갈 때는 폭시가 슬퍼 못해 한탄했어요. 그는 뽕뽕을 실망시켜 대고 ‘**술버트**’라는 별명을 얻었던 기억이 눈에 아직 선했어요.

4장. 디스코와 술버트

술버트 별명에 대한 이야기.

옛날에 폭시와 줌보는 보물을 찾기 위해 숲으로 향했어요. 날씨가 밝았는데 인간의 휴일이라서 잃어버린 귀중품을 찾으려 매우 좋은 날. 오랜 시간이 안 되어서 가까운 곳에서 축하하는 인간들의 소리가 들렸어요. 잼들이 소리를 따라 가다가 서커스단이 공연하고 있는 잔디밭 근처 풀밭에 숨었어요. 모두가 웃고 바비큐를 튀기며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자동차 트렁크 안의 색다른 기계가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주하고 휴식 중인 인간들이 음악에 맞춰 춤추고 있었어요.

궁금해진 개머스터들은 그곳에 편안하게 앉아 음악에 매료되어 인간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대체 잼스터를 비판하는가?

마술사는 큰 자석을 이용해 트릭을 했고 돋보기를 통해 불을 붙여서 관객들을 놀라게 했어요. 광대는 작은 폭발과 다채로운 연기를 내며 화학물질을 실험하고 나서 진행자는 시를 읊고 있었어요.

곡예사는 소화기를 뿌려서 축하를 폼파티로 만들었어요.

즐겁게 노는 인간들은 늦게까지 머물렀어요. 저녁이 되었을 때 짐을 꾸리기 시간. 그때는 너무 피곤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었길래 짐을 급하게 싸고 있었어요.

마침내, 봄비는 몇 대의 차가 잔디밭에 짙은 연기를 남기고 동네를 향해 출발했어요.

자동차 연기가 사라지고 엔진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자 잼스터는 잔디밭에 와서 인간들의 음악 기계와 비닐 디스크, 자석이 든 상자, 책, 화학 약품, 소화기를 놓고 간 것을 찾았어요.

물건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잼들은 모두를 마을로 가져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들은 운동에다가, 들것 만들기, 짐을 싣기까지 길고 혹독한 준비를 잘 해서 다녀갔어요. 잼스터들이 너무 힘든 길을 시달렸지만 그럭저럭 모든 보물을 요령 있게 가져왔어요.

그건 그렇고, 폭시가 그와 같은 힘든 업무를 하기 위해 트럭을 얻을 생각을 하게 된 순간이었는데 우리 이제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다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가져온 보물은 중앙 광장에 놓여 있었어요. 그 보물을 본 적 없는 주민들이 얼핏보려고 빨리 왔어요. 뽕뽕 왕은 약하고 느려서 마지막으로 왔어요.

뽕뽕은 양철 캔으로 만든 왕관을 항상 썼는데 왕관이 머리에 꼭 끼인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는 왕위에 오른 날에 왕관을 한 번 써 보고 절대 벗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그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벗기를 싫어하더니 요즘은 왕관이 머리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반면에, 이제 왕관이 없는 뽕뽕을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지요. 그러니까 그가 왕관을 한 번 벗어 보았을 때 거울에 비친 자신을 알아보지 않는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몇몇 잼스터들은 왕이 왕관을 반드시 써야 자거나 목욕을 한다고 할 뿐더러 “왕이 죽을 때 왕관이나 보통 관을 써야 물어 놓을까?”라는 어두운 농담도 있었어요.

“에헴... 에헴.”

뽕뽕은 기침을 했고 지팡이로 기계를 가리켰어요.

“이거... 뭐? 에헴... 트랙터이지? 램프이지?”

할아버지이지만 기술 지식을 과시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어요. 구식이거나 어색하더라도.

폭시와 뽕뽕은 급하게 되어서 진행자의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잊지 못할 쇼가 시작됩니다!”

하늘은 즉시 어두워졌고 멀리서 있는 새는 두려워서 소리쳤어요. 뽕뽕은 불안감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궁금증이 안전함을 이겼어요.

의심과 기대로 기계를 응시하던 주민들이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시작!”

푹시가 버튼을 눌렀을 때 기계는 비닐 디스크를 회전시키기 시작했어요. 씩하는 소리가 나오고 킁킁거리는 소리로 바뀌었어요. 잼스터들은 깜짝 놀라 고개를 내밀고 기계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키가 작은 잼스터들이 잘 보기 위해 작은 나무를 올라가 체리처럼 가지에 매달려 있었어요.

“왜 아무런 변화가 없지?”

뽕뽕은 귀를 대러 기계로 다가갔어요. 기계 옆에 놓여 있는 자석에 자신이 너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석은 즉시 그의 왕관과 함께 머리를 끌어 당겼어요. 그러던 중 경쾌한 음악이 갑자기 등장했어요.

그 상황은 매우 창피했는데 속수무책인 뽕뽕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당겨졌을 뿐만 아니라 어디로 당겨지는지 몰랐어요. 가난한 왕이 지쳤을 때까지 자기력과 무력하게 저항했어요. 그의 눈은 미친 듯이 굴러가며 얼굴은 빨개졌어요. 자기력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고 관중은 깜짝 놀라서 입이 떡 벌어지게 왕의 건디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는 음악은 계속 켜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미친 춤처럼 보였어요.

“하라버지 춤추고 싶나 봐. 박수!”

젊은들이 왕의 활력에 자부심을 느끼며 지지를 외쳤어요.

“폐하, 만수 무강하 시옵소서! 춤추자!”

그 때는 뽕뽕이 자석에 짝 붙었어요.

일부 주민은 뭔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하고 가장 겁이 없는 잼스터들은 왕을 돕기 위해 달려왔어요. 사랑에 대한 발라드가 흘러나오는 동안 그들은 뽕뽕을 밧줄로 감아 자석에서 마침내 끌어냈어요.

줌보와 뽕뽕은 기계를 꺼러 위로 올라갔는데 회전하는 비닐에 원반을 밟자 디스크는 그들을 즉시 빙빙 돌게 시작했어요. 그들이 내릴 할 수 없고 픽업에 충돌을 피하도록 마치 경주마처럼 장벽을 뛰어넘어야 했어요. 얼마 후 뽕뽕이 기계를 끄는 데를 성공했고 비닐은 드디어 멈췄어요.

뽕뽕왕은 한시름 놓게 자리에서 일어나 손가락으로 푹시를 가리켰어요.

“그... 이름은 뭐지... 술버트!”

왕은 분노에 푹시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멈춰.”

그렇게 말한 뽕뽕은 지팡이를 흔들어서 집으로 싫증나게 향했어요.

잼스터족은 동정어린 눈빛으로 그의 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날부터 미친 춤은 모든 장로들의 전통이 되었고 푹시는 술버트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5장. 햄미 구하기

폭시의 징계 기간이 시작되었다. 그가 너무 슬프고 우울했는데 뽕뽕과 줌보가 그를 응원해주기 위해 방문했어요.

그 방문 중 하나에서 뽕뽕이 햄미 햄스터에 대한 추억이 나왔어요.

“그가 친절하되 좀 이상하던데. 그리고 집에 초대했고 그 집이 너무 그리웠다고 했는데 무슨 말이지?”

폭시가 틀림 없었어요.

“물론 숲이야. 동물이지?”

“응.”

“동물들 어디 살고 있지?”

“몰라...”

“숲이잖아!”

“그래... 폭시는 영리하네!”

폭시가 칭찬에 아첨했고 계속해서 물어보았어요.

“역시 그는 케이지에 보관되어 있더라고?”

“응. 주인은 그가 끈기없이 쳇바퀴를 돌리게 만들던데. 끔찍하겠어.”

폭시는 흥분해졌어요.

“인질일 뿐만 아니라 고문도 당하군... 그가 석방될 자격이 있잖아! 빨리 독립시키자!”

“가자!”

친구들도 신나서 갈 준비를 시작했어요.

필요한 물건을 모두 모아서 그들은 뽕뽕이 햄미와 만났던 잔디밭으로 이동했는데 케이지가 놓여 있던 곳에서 잠시 멈췄어요. 주변을 킁킁거리다가 뽕뽕은 햄스터의 냄새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을 발견했고, 모두가 그 뒤를 따라 동네로 나갔어요.

햄미의 냄새가 사라졌다 생겼으니 구하기는 길었어요. 별이 하늘에 나타날 때쯤 만에 친구들은 동네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알 수 없는 다양한 냄새도 많아지거니와 햄미의 냄새도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어요.

“날 따라와.”

뽕뽕은 이끌었어요. 세 친구가 어둠 속에서 눈에 띄지 않도록 검은 반바지를 입고 얼굴에 검은색 줄무늬를 칠했어요. 그들은 빈 길을 걷고 하수 도랑을 지나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어요. 드디어 귀여운 2층집이 나타났다. 뽕뽕은 2층의 연 창문을 가리켰어요.

“저기!”

“자유!”

줌보가 신이 나게 되어서 소리를 지르자 폭시가 손으로 줌보의 입을 막았어요.

“조용! 비밀 임무야. 조용해야 하라.”

“미안.”

세 친구가 집에 더 가까이 왔는데 갈고리가 달린 밧줄을 던지고 창틀을 잡았어요. 그런 다음 그들은 재빨리 밧줄을 타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기에는 달빛 속에서 케이지가 보였고 케이지 안에 있는 침대에 햄스터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또한 방 한쪽 구석에는 앵무새의 새장이 있고 다른 쪽 구석에는 큰 어항이 있었어요. 로지라는 앵무새는 깨어 있었고 침입자들을 깜짝 놀라 쳐다보았어요.

줌보는 씻 기후에 입술에 손가락을 대었어요.

“조용.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도 도와 줄게요.”

줌보가 창틀에 넘기는 사이에 폭시와 뽕뽕은 밧줄로 바닥에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는 케이지를 열고 잠든 햄스터를 조심스럽게 담요로 굴러서 캐리어 같은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밧줄을 묶어서 캐리어를 들어올렸을 때 갑자기 옆방에서 누군가 불을

켰어요. 다가오는 발자국이 들렸는데 잼스터들이 서둘러 수박에 없었어요. 줌보가 잠든 햄미를 급하게 풀다가 우유히 떨어뜨렸어요.

“치즈.”

햄미가 치즈에 대한 꿈을 꾸었는데 눈을 뜨지 않으면서 하품하고 반대편으로 돌아갔어요.

폭시와 뽕뽕은 마침내 창틀에 올랐어요. 다가오는 발자국이 더 가깝게 들렸어요.

“앵무새 아가씨, 당신을 독립시켜려 곧 돌아올게요. 애완물고기도 독립시킬게요!”

줌보가 이런 말을 걸어서 주먹을 휘두른 채로 ‘자유!’라는 소리를 쳤어요.

“응, 자유.”

로지가 무서워 해서 줌보를 따라 반복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편, 금붕어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잼스터들은 창밖으로 나가고서 캐리어에 잠든 햄미를 아래로 밀었고, 그 캐리어는 바닥으로 떨어졌을 뻔해서 불과 몇 인치 떨어진 곳에 다행히 멈추었어요. 잼스터들이 밧줄로 빠르게 내리고서 밧줄을 풀자 담요에 아직 잠자는 햄미를 끌으면서 숲으로 향했어요.

그들은 햄미를 놀라게 해주려고 깨우지 않기로 했어요. 잼들은 햄미가 숲 가운데 깨어나는 것을 아주 좋아할 거라고 믿기 때문이었어요.

드디어 그들은 달빛이 비치는 숲에 도착했고 좋은 소식으로 햄미 깨우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어나세요.”

폭시가 햄미의 어깨를 잔잔 두드렸어요.

“햄미 씨는 이제 자유로운 사람.”

그렇게 말한 뽕뽕은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자유다!”

줌보가 더했어요.

“네. 뭐... 뭐래요?” 햄미가 잔뜩 물었어요. 그가 하품과 스트레칭을 했는데 잼스터들을 보았을 때 깜짝 놀라서 눈이 튀어날 정도였어요.

“내가 어디 있지?... 너들 누구야? 내 케이지가 어디 있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햄미 씨한테 도와 드렸어요.”

폭시가 햄미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할 때 뽕뽕은 그랬어요:

“햄미 씨는 지금 안전한데요!”

“당신은 자유로워서 될 수가 있네요!”

줌보가 그 말을 큰 목소리로 선언하자 그리 먼 곳에서 늑대가 대성통곡처럼 울부짖었어요.

“어디 가는 게? 무슨 일이야 원?”

햄미는 호랑이처럼 흥내내고 있지만 겁이 많은 생각이 났어요:

‘아, 날 죽기려고 숲에서 데려왔지? 어떻게? 로지, 내 최친구... 내가 포기하지 않을 걸 알아라...’

끝까지 싸울게...’

“집에 데려다주고 있잖아요. 햄미 씨, 집은 숲에 있죠... 어, 집에 가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요? 기억 안 나와요? 저기요, 저는 뽕뽕이에요. 우리 좀 전 천 주변에서 만났어요.”

“세상에! 내 집은 아파트에 있는데 도시에 가고 싶었다는 뜻이었지.”

폭시가 깜짝 놀랐어요.

“엄어. 당신은 인질이라고 생각했는데 저의랑 안전할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숲은 안전하기는커녕 포식자들 날 잡아먹을 수 있다!”

그렇게 잔소리한 햄미가 똑바로 울고 패닉에 빠졌어요. 아주 많이 겁에 질려서 잼스터들은 진정시키는 게 몇 시간 동안 걸렸어요. 울음 끝에는 햄미가 인생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햄미는 어렸을 때 인간 가족이 입양해서 케이지에서 사는 생활밖에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소피라는 소녀가 항상 친절하는 주인이고 자주 맛있는 간식을 사다 줘서 햄미를 빈틈없이 돌보았다고 그랬어요. 로지라는 앵무새 친구, 어항에서 살고 있는 조용한 금붕어들은 아주 좋은 룸메이트들이어서 햄미는 대단히 행복했으니까 숲에서 야생 동물로 사는 아이디어가 싫다는 말도 나누었어요.

“여러분, 돌보기 위해 고생을 많이 해서 고맙네. 너는 내 친구들이 되기는 했지만 내가 집에 꼭 돌아가야 해서 제발 데려다가주게. 주인들 주무시고 있어서 새벽까지 돌아오면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할 텐데.”

잼스터들이 한숨 지으며 햄미와 함께 동네로 터덜터덜 나가서 자정 전에 도착했어요.

이전만큼 창문 걸쇠가 절거덕 소리나자 창문이 열렸고 폭시와 뽕뽕이 다시 방에서 들어왔어요. 아래 기다리고 있는 줌보가 햄미의 통통한 허리에 밧줄을 묶자 위에 있는 잼스터들은 들어올리기 시작했어요. 햄미는 운동을 하지 않고 게으른 생활 방식으로 인해 도움 없이 오를 수가 전혀 없어서요. 로지 앵무새는 그날 밤 이전의 트릭을 목격하더니 이것을 보며 아무것도 놀라지 않았어요.

들어올림에 끝에는 햄미를 케이지으로 데려다왔어요.

“햄미 씨, 정말 미안해요... 앵무새 아가씨, 불편을 줘서 미안합니다.”라는 뽕뽕이 너무 부끄러워 보였어요.

폭시는 덧붙였어요. “정말이에요. 햄미 씨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잘못했어요”.

“여기! 제 케이지은 얼마나 편안한 집인지 잘 보게. 설마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네?”

햄미가 케이지 속의 불을 키자 뽕뽕, 폭시, 줌보는 눈이 튀어날 정도로 놀랐어요. 이렇게 예쁜 집을 본 적이 없었니까요.

햄미의 케이지집은 예쁜 양탄자 말고는 작은 소파와 안락의자, 옷장과 거울, 러닝머신도 있어서 안 고려한 물건이 없을 정도였어요. 또한, 귀여운 화분도 있거니와 벽에는 사진도 걸려 있으니 케이지집은 아파트처럼 잘 꾸며 있었어요. 잼스터들은 이런 집을 보니 햄미가 숲에 이사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잘 알게 되었어요.

햄미는 기쁘게 “내가 원하는 게 다 있구먼!”라고 외쳐서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내 첫사랑 버티만 빼고...”. 탄식하는 잼스터 친구들에게 귀여운 햄스터녀의 사진을 보였어요. 그가 예쁜 치마를 입고 손으로 만든 날개도 입고 있었어요.

“어느날 내 여자친구가 에어버스 사진 보니 바로 하늘 날고 싶어 했네. 그녀 이름은 버티였는데 비행에 너무 집착하게 되는 바람에 심지어 자신을 에어버티라고 시작했구먼! 결국은 버티가 날개를 만들고 그냥 날아갔네. 그 이후로 내 여자친구 본 사람 아무도 없어서 마음 아직 아프네.”

이렇게 말해서 슬퍼 보이는 햄미가 벽에 붙은 포스터를 가리켰어요. 저기는 빨간 글자로 쓰여진 “에어버스”가 있는 화려한 하얀 비행기가 보였어요.

친구들이 몇분 동안 앉아 쉬었는데 숲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을 때는 잼스터들이 작별 인사를 해서 창문으로 가려고 했지만 햄미가 그를 막았어요.

“여러분, 나를 이렇게 잘 돌봐서 대단히 고맙네. 그런데, 내 친구들이 숲으로 가기 전에 기운을 내도록 재미있는 쇼를 전시해야겠지”

“쇼라고요?” 폭시가 불안해 보였어요.

“응.” 햄미는 큰 흥분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아, 솔직히 말해서 우라 최근에 한 쇼가 너무 잘못돼서 아직도 부끄러워요...”라고 대답한 줌보는 머뭇거렸어요.

“하하, 걱정 하지 말게. 다 괜찮겠네.”

이렇게 말한 햄미는 옷장에서 원뿔 모자와 별무늬 망토를 꺼내자 재빨리 입었어요. 다음에 작은 축음기를 켜서 음악이 재생되었어요.

“시작!”

햄미는 서커스 동물 조련사처럼 앵무새의 새장에 가리키자 로지는 새장에서 발을 내밀고 문 자물쇠를 열고 날아가 햄스터 옆에 있는 햇대에 앉았어요.

“하나!”

앵무새가 햄미의 명령을 들어서 다른 농어로 날아갔어요.

“둘!”

로지가 공중제비를 했어요.

“셋!”

어항에 있는 금붕어들이 물에서 뛰쳐나와 공중으로 뒤집혔다가 다시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쇼는 아주 재미있어서 잼스터들이 햄미를 구하려는 시도가 실패한 기억이 없어진듯 큰 목소리로 박수를 치며 배꼽 빠지게 웃었어요.

특히, 햄미가 공을 주머니에 넣고 뒤통수를 가볍게 때린 뒤 이 공을 입에서 빼는 트릭에 친구들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렇게 햄미는 몇 시간 동안 친구들을 즐겁게하면서 다양한 트릭을 보여 줬는데 모두가 작별 인사를 할 시간 되었을 때 숲주민들은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것을 아주 좋아했지만 숲으로 돌아갈 시간이라서 안 돌아갈래야 안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햄미는 새로운 친구들을 껴안고 행운을 비렸어요. 잼스터들은 햄미에게 잼스터 마을을 방문하도록 다시 한번 초대하고 가는 길을 그려 설명했고 작별 인사를 했어요.

숲 가장자리를 접근하여 잼스터들은 실패한 구조 시도가 서커스 쇼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데에 찬성했어요.

그 후에는 잼스터들이 햄미의 집에서 보았던 다양한 트릭으로 부족 친구들을 즐겁게 했어요. 그렇지만, 어느날에는 뽕뽕이 트릭 중에 공을 삼켜 관객들을 놀라게 했어요. 이 사건 이후 잼스터들은 가능한 한 드물게 이물질은 입에 넣으려고 노력해요.

6장. 잼스터의 대박

그 날은 대박을 찾고 있는 잼스터들에게 너무 길고 힘들지만 운이 좋은 날이었어요.

뽕뽕, 폭시와 줌보가 일찍 일어나서 하늘이 붉게 물들고 태양이 서쪽의 나무들 뒤로 사라지는 때까지 숲 여기저기에서 인간의 돈 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그들의 배낭은 보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줌보가 땀 뚫으며 그랬어요.

“마을로 갈까?”

“응, 반바지를 말릴 시간이지” 뽕뽕은 흥분히 대답했어요.

세 친구는 울창한 풀밭에 발자국을 남기면서 마을 방향으로 나갔는데 25분 만에 도착했어요. 그달이 마을 입구에 있는 경비병들을 지나서 큰길을 걷다 뽕뽕왕 댁에 다가갔어요. 왕은 담요로 싸인 베란다에 팔 아래에 온도계를 두고 앉아 컵에서 김이 나는 차를 드시고 아파 보이셨어요.

“보물입니다. 누구에게 드려야 합니까?”

뽕뽕은 질문해서 베란다에 들어와 보물이 든 배낭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아휴. 나도 몰라. 오늘 너무 아파서. 그냥 전당포란 보관실로 가져가 봐. 장로들 거기서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겠어.”

잼스터족의 보물 보관실은 “전당포”라는 이상한 이름을 붙였어요. 잼스터들은 도시에서 살고 있는 인간이 귀중품을 전당포에 자주 가져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당포는 가장 안전한 보관장소라고 생각해서요. 그러니까 숲주민들이 인간을 흉내내서 지하에 있는 큰 동굴에 이 이름을 붙였어요.

재무들은 박대박과 돈많음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졌어요. 그들은 뽕뽕왕처럼 연세가 많고 똑똑하시며 책임감이 강하다는 사실은 나중에 증명될 거예요.

어쨌든, 뽕뽕, 폭시와 줌보는 뽕뽕왕에게 안녕을 빌고 동굴로 떠났어요.

동굴 입구는 북풍으로부터 잼스터 마을을 보호하는 높은 언덕에 위치했어요. 친구들은 입구에서 잼스터 경비원들을 맞이하고 지하로 이어지는 길고 구불구불한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복도는 높고 넓은 홀로 이어졌어요.

홀 맞은편에는 두꺼운 고서가 쌓여 있는 탁자에 두 분의 재무가 앉아 있었어요. 그들 중 하나는 통통하고 작은 반면에 다른 하나는 날씬하고 키가 크며 멋있는 옆수염이 있었어요. 둘 다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젊은 잼스터들이 인사했어요.

“네, 젊은들... 들어 오세요. 보석류? 돈 가지고 왔죠?”

키가 큰 박대박이 웃을 띠며 인사했어요.

“어서 와. 뭘 가져왔어?” 통통한 재무가 얼굴 보지 않게 중얼거렸어요. 그의 이름은 돈많음이었어요.

“어... 많은 대박을 가져와서 좀 보십시오.” 폭시는 신나게 배낭을 풀기 시작했어요.

“잘했어요. 봅시다. 물건 평가하고, 등록하고 안전하게 넣겠어요”.

박대박은 돈보기를 들고 물건을 철저히 검사하기 시작했어요.

“박스... 하나. 은 목걸이... 찢어졌음, 하나. “철도 뉴스”란 신문... 구겨졌음, 한 권. 금속 브로치... 하나. 초콜릿... 물린 자국 두 개, 한 바.” 박대박이 계속해서 계산하고 있었어요.

“물린 자국이라고 하셨어요?” 줌보와 뽕뽕은 놀랐어요.

“이거 보세요... 그런 자국을 보니 하나 치아가 없는 것 같아요.”

뽕뽕과 줌보는 이 말을 듣자 폭시를 화나게 바라보았어요. 폭시는 앞니 중 하나가 부러졌기 때문이에요.

“응... 이 초콜릿은... 견과류도 있고 건포도도 있고 해서 안 먹을래야 안 먹을 수 가 없었거든요... 미안합니다.” 폭시가 영영 울었어요.

쭌보와 뽕뽕이 화를 내 폭시를 뒤통수치려고 뛰었고 폭시는 비밀문을 보면서 처벌을 기피하도록 저기로 뛰어나갔어요. 저 문은 낡고 버려져서 무거워 보였어요. 재무들은 폭시의 비밀문으로 뛰어나는 것을 너무 늦게 반응했어요.

“당장 멈춰!”

박대박 소리치는 쭌 돈 많음은 돋보기를 떨어려서 꿀 먹은 벙어리처럼 공포 속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뭘... 뭘 했어요?”

폭시가 고개를 돌리다가 친구들과 부딪쳐서 모두 어두운 출입구로 넘어졌는데 문이 광 단혔어요. 벗어날 길을 보지 않게 어두워졌어요.

“가지 마! 버려진 미로!”

돈 많음 재무가 소리를 쳤는데 소리치마나 소용 없었어요. 무거운 문이 그들을 갈라 놓았어요.

어둠 속에서 햄스터들은 몇 걸음 전진했다가 후퇴했지만, 던전의 벽을 아무리 만져도 문을 찾을 수 없었다.

“우리... 뭘 해야 하지?” 뽕뽕이 부드럽게 물었는데 분명히 두려워 있었어요.

“저거 봐. 뭔가 빛나고 있어. 빛 속으로 가자.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될 거야.”라는 폭시는 자신감이 좀 얻었어요.

친구들이 어두운 미로를 헤매며 도처 널려 있는 거미주에 때때로 걸렸어요. 거미줄과 싸워야 하고 때로는 입으로 잡으면 그것을 뱉어야 하는 그들은 필사적으로 신음하고 흐느끼고 있었어요.

“만약에... 여기서 거대한 거미나 뱀이 박쥐가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지? 독이 있으면 어쩌지?” 쭌보가 무섭게 물었어요.

“독 있는 박쥐가 없잖아.” 폭시는 반대했어요.

“무슨 소리야? 네 머리에 착륙하면 보게 될 거야!” 쭌보가 불길하게 말했어요.

“아아!” 잼스터들이 모두 겁에 질려 도망갔어요.

그들은 허리케인처럼 돌진했고 끝없는 회전으로 뛰들어서 문에서 더 멀어졌어요. 결국 잼스터들은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 숨을 고르기 위해 멈춰 섰어요.

“맹세코 괴물 봤어!” 쭌보가 지쳐서 숨을 쉴 수가 거의 없었어요.

“응, 나도 봤어!” 뽕뽕이 고래를 꼬덕였어요.

“거짓말! 아무것도 없던데.”

“진짜? 괜찮다.” 뽕뽕은 어깨를 들썩이었어요. “나가자... 근데, 우리 어디니?”

“이 미로는 우리 마을 아래에 펼쳐진 오래된 미로인 것 같아.”라고 점보가 추측했어요. “여기에서 여러 개 출구가 있을 텐데 우리 꼭...”

“목이 마르다. 레모네이드 원해.” 뽕뽕은 갑자기 말했어요.

“배고파!” 쭌보도 잔소리에 동참했어요.

친구들은 지치지 않았을 듯 다시 도망갔어요. 도망갈수록 회전과 복도는 끝없이 보여졌어요. 폭시는 피로가 생기는 바람에 시간과 방향 감각을 결국 잃어서 쭌보의 멈춘 것을 못 봐서 등에 부딪혔어요. 뒤에서는 뽕뽕이 달려들어서 모두가 넘어졌어요.

“왜 멈췄어?” 폭시가 자신의 밑에 누운 쭌보에게 물었어요. 이렇게 말하자 고개를 들어 천장틈에서 한 줄기 햇빛을 보았어요.

“나 어깨를 올라타면 통로를 뚫혀 볼 수 있어.” 쭌보가 제안했어요.

잼스터들이 바로 서서 쭌보에게 천장에 도달하도록 어깨를 올리기를 도와줬어요.

쭌보가 더 큰 통로를 만들수록 흙이 떨어져 흘렀어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보물이 든 무거운 상자도 떨어졌어요. 그 덕분에 통로가 크게 열렸어요.

“어, 대박이지?” 뽕뽕이 놀랐어요.

“여기서 왜 있을까? 조상들 200년 전에 이 지역을 개간한 게 아닌가?” 폭시가 자신의 생각에 잠겨 중얼거렸어요.

“상관없다. 이것도 가져가자” 줌보가 흥분해졌어요. “뽕뽕아, 날 좀 위로 던져주게.”

뽕뽕은 명령을 따라 줌보를 위로 던졌는데 줌보는 어떤 난간을 잡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 장소는 숲 아니라 왕의 부역!

바닥에는 더러워진 줌보가 막 나온 벽난로 옆에 뽕뽕의 손자가 앉아서 소나무 콘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자기야, 할아버지 어디 계시니?”

“어른들은 다 나갔어요. 미로에서 갇힌 사람 구하려고 마을 주민들 다 나갔어요.”

“어. 미로에 거기에 갇힌 사람도 있구나. 아이고... 자기야, 혹시 밧줄 있니?”

손자는 일사천리 밧줄을 가져왔고 줌보는 밧줄을 통로로 내렸어요. 우선, 똑똑한 잼스터들이 보물상자를 올렸고 그제서야 스스로 올라왔어요.

그들은 부역 한가운데 서서 재채기를 하고 먼지를 잡아냈어요. 돌연히 현관 문이 쿵 닫힌 소리 나오고 뽕뽕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왕은 코가 빨가졌고 이마에서 불인 냉뽕질이 거의 녹아 버려서 너무 아파 보였는데 잼스터들을 보니 깜짝 놀랐어요.

“맙소사! 어디 갔소? 네가 미로에서 꺼지지 않았소? 다 널 구하고 있소!”

“꺼지기는요... 탈출구를 곧 찾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혼란스러워 답했어요.

“할아버지, 이 보세요. 우리 보물 상자를 찾았는데요.”

“어머... 이 건 내 25년 전 잃어버린 보물상자요. 발견된 걸 믿을 수가 없소.”

그렇게 말한 뽕뽕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쓰다듬고 뚜껑을 던졌어요. 오래된 보물을 보기 위해 손자와 바닥에 앉았어요. 잼스터들은 이런 가족의 활동을 감상해서 마음이 따뜻하게 되었어요. 땀을 닦고, 물을 마시고, 마을의 주민들에게 미로에서 안전하게 나가서 구할 필요가 없다는 소식을 나누기 위해 댁에서 나가려고 했지만 왕은 멈추라고 했어요.

“어디 가? 재무들 말씀을 왜 안 따랐지? 지난 주에 너 잘못해서 큰 문제 생긴 기억 안 났소? 어른들의 말을 꼭 순종해야지.” 뽕뽕은 야단을 치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잼스터는 탄식하여 밖으로 터덜터덜 나갔어요. 지난 주 문제를 잊을 수가 없겠네요.

7장. 폭시, 뽕뽕, 줌보가 장로들에게 불순종하는 이야기

어느날 폭시, 뽕뽕, 줌보가 마을 중앙 잔디밭에서 만나서 놀고 있었어요. 할 일이 없어서 정말 게으른 날이었어요. 뽕뽕은 사과를 아삭아삭 먹고 줌보는 풀잎을 씹는 중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폭시는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으며 서 있었어요. 그가 사탕을 찾는 것에 대해 상상하고 있었는데 상상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났어요.

“여기 봐. 나는 왜 다 대박을 “전당포”로 반드시 넘겨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찾아 뽑은 물건 인간들한테 바로 왜 안 가져가다 줄지? 인간들 이걸 보면 좋은 게 아닐까?”

뽕뽕이 이 말을 듣자 얼어붙었어요. 줌보는 응답했어요:

“장로 말씀 꼭 순종해야 하잖아. 마을로 안 가져오면 안 되지.”

“줌보야 잘 생각해 봐. 인간들한테 잃어버렸던 물건 돌려보면 기운 줘서 칭찬이나 사탕 받을 텐데.”

“뽕뽕 여쭙보러 가자.” 뽕뽕은 사과를 다 먹었어요.

“안 돼! 하나 여쭙보면 끊임없는 잔소리 들을 거야. 듣으니 차라리 귀머거리가 되겠네...” 폭시는 뽕뽕왕 만큼 잔소리하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뽕뽕 말이된다. 왕은 슬기로운 분이시.” 줌보는 뽕뽕의 편을 들었어요.

그렇게 말한 친구들이 폭시의 잔소리를 무시하게 뽕뽕의 댁으로 나갔어요.

그들이 들어오기 전에 문 앞에서 깔끔하게 잘 정리했어요. 왕은 조잡해 보이는 사람을 싫어해서 지팡이로 머리를 때리고 했으니까요.

뽕뽕이 문고리를 두드렸고, 잠시 후 슬리퍼 타달타달 기침 콜록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려서 뽕뽕왕이 나왔어요. 그는 낡은 초라한 가운, 짧은 반바지, 구겨진 양철 왕관을 머리에 쓰고 있는데 팔에 지방을 잡고 있었어요. 비뚤어진 긴 막대기에 불과했어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네?” 뽕뽕은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엄마가 보낸 치즈나 딸기 잼 주러 왔나?”

“아 맞습니다 뽕뽕님... 왕의 조언을 위해 왔습니다.” 뽕뽕은 앞으로 나아가서 했어요.

“그래?” 뽕뽕은 관심을 당장 떨어뜨려서 고개를 저으며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무슨 조언? 짧게 말해. 난로 옆에 앉아 들을게.”

“뽕뽕님, 찾아 뽑은 보물은 인간들한테 돌려보는 게 어떻습니까? 잼스터들 인간의 친구가 되고 맛있는 간식도 받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줌보는 이 말씀을 준비한듯 빨리 말했어요.

뽕뽕왕은 고개를 저어서 대답했어요.

“우리 인간들한테 오랫동안 이 보물 돌리고 있잖아. 그렇게 하면서 보이지 않고 자랑도 하지 않아. 인간한테 사심 없이 위하고 칭찬이나 선물도 받지 마. 어떤 사람 칭찬을 받을수록 욕심 많고 교만돼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져.”

이렇게 말한 뽕뽕은 판단하는 눈빛으로 잼스터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어서 문을 광달았어요.

잼스터는 서로를 바라봐서 뽕뽕이 그랬어요.

“왕님...”

아무도 나가지 않았어요. 폭시는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그래도 때로 오래된 규칙을 변경할 필요 있잖아. 우리 방식대로 해서 뽕뽕왕 옳은지 아닌지 보는 게 어때? 그가 옳지 않다면 마을 주민들 선물 받아서 우리한테 감사할 텐데.”

줌보는 반대했어요.

“무슨 소리야? 칭찬이나 기대해서는 교만될 수 있어서 나쁘다는 말씀 들었지 않았어?”

폭시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말도 안 돼. 너 겁이 많아진 것 같아! 가자.”

잼스터들은 어깨를 들썩이며 폭시를 따라갔어요.

“이거 봐. 뽕뽕아, 네 부모님한테 우리 다 줌보 집으로 노러 가겠다고 해.”

폭시는 교활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줌보 부모님한테 우리 다 뽕뽕 집으로 놀러 가겠다고 해. 그래서 왕의 말씀 확인하는 김에 다 부모님이 우리가 어른들의 감독하에 놓고 있다고 생각할 거야.”

잼스터들은 흠뻑 젖었다가 조금 후에 같은 장소에 다시 모였어요.

폭시는 파이프, 막대기와 드럼, 오래된 브로치, 구부러진 막대기와 검은 바이커 반다나를 가져왔어요. 뽕뽕은 물건을 바라봐서 의심쩍게 물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선택했지?”

“이 브로치를 숲속의 오무닥 앞에 찾아 뽕뽕아서 산림관리사와 그의 아내한테 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 드릴 때 너는 파이프에 붙어놓고 줌보는 드럼을 칠 테니 나는 이 반다나를 깃발처럼 들을게. 인간이 너무 기빠질걸.”

줌보가 두개골무늬 반다나를 바라보면서 회의적으로 질문했어요.

“그 깃발 진짜 들겠니?”

폭시는 경멸한 눈빛으로 답했어요.

“물론! 내가 인간들이 같은 깃발 드는 걸 몇 번 사진에 봤어. 오무닥에 가자.”

일사천리 잼스터들이 숲길을 따라 갔어요. 뽕뽕은 파이프를 고성으로 붙여넣고 줌보는 드럼을 치며 폭시는 브로치와 검은 깃발을 가져가고 있었어요. 소나무가지에 앉아서 치즈 먹고 있던 까마귀가 잼스터를 보고 깜짝 놀라서 가지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잼스터들이 산림관리사의 집 주변에 다가왔을 때 안주인은 세탁한 옷을 널러 베란다로 나갔어요. 파이프의 시끄러운 소리와 드럼의 귀청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듣고 안주인은 깜짝 놀라서 숨을 헐떡이며 빨래통을 떨어뜨렸어요.

그 이상한 동물을 유심히 살피던 안주인은 해골과 뼈가 있는 검은 깃발을 보고 짹짹 소리를 내며 오두막으로 달아났어요. 잠시 후, 수염을 기른 거대한 산림관리사가 총을 들고 밖으로 뛰쳐나와 소리쳤어요. 조준을 한 산림관리사는 총을 쏘고 검은 깃발을 명중했어요. 스틱이 부러져서 천은 폭시의 머리에 떨어졌어요. 햄스터들은 겁에 질려 도망가려다가 천에 얽힌 폭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뽕뽕과 점보가 뒤를 이었어요. 산림관리사는 다시 격렬하게 고함을 지르고 해고했는데 오래된 소나무를 때려서 바늘과 원뿔이 잼스터에 비처럼 떨어졌어요. 비명치는 잼스터들은 다시 일어서서 집으로 달려갔어요.

잼스터들은 한마디 없이 한숨을 지으며 마을에 왔어요. 폭시는 갑자기 뽕뽕을 찌르고 잔소리를 했어요.

“너 때문에 실패했어! 파이프를 서투르게 붙여넣아서 인간을 무서웠잖아!”

“무슨 소리야? 네 아이디어는 처음부터 실패할 걸 알 수가 있었어!”

그래도 폭시가 친구들을 계속해서 비난했어요.

“진짜? 줌보야, 너도 잘못했어! 드럼을 더 부드럽게 쳤어야 했지.”

“뭐라고? 자신 부끄러워해야지!” 줌보가 모욕을 당했어요.

서로를 비난하는 잼스터들의 싸움을 갑자기 늙은 까마귀가 방해했어요.

“멈춰! 싸우지 마라! 어른의 말 왜 항상 불순종해? 도대체 충격 사건을 일으켰지? 숲주민들한테 얼마나 불안을 준지 알아? 도움 대신 불편 밖에 안 줘. 부모들이 야단 쳐야 해...”

늙은 까마귀가 계속 말해도 잼스터들은 그 잔소리를 무시해 갔어요. 앞에는 마을 주민들과 잼스터들의 부모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뽕뽕왕은 한숨쉬어서 슬픈 미소를 띠었어요.

8장. 꿀스터들과 만나기

어느 화창한 여름날, 폭시의 형벌에 끝애, 그는 줌보, 뽕뽕와 함께 새벽이 거의 되지 않은 이른 아침에 대박찾기를 하러 마을을 떠났어요. 그들이 길로 나가며 보물을 찾을 때 자주 부르는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친구들은 숲 속으로 깊이 들어와서 갑자기 멈춰서요. 풀을 실은 수레를 밀고 있던 잼스터와 매우 흡사한 세 마리의 동물을 보았어요.

옷과 땅은 머리로 그 동물들은 소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좀 더 어두운 털과 더 폭신한 꼬리만 잼스터와 다른 것밖에 없었어요.

잼스터들은 귀엽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숲속의 동물이어서 낯선 사람을 만날 때 경계해졌어요. 몇 초간의 침묵 끝에 폭시는 자신감이 생겨서 조금 앞으로 나아가 그랬어요.

“누구세요?”

“들판, 강, 산의 군주 꿀스터족입니다. 저는 **식행**이라고 합니다. 제 친구는 **쿠키**와 **빙슈**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키가 큰 여자가 말했어요.

“잃어버린 보물을 되찾는 위대한 잼스터족이에요! 어디에 가요? 뭘 끌고 가요?”

줌보가 폭시의 등에서 튀어나와서 물었어요.

“왜요?” 빙슈가 놀랐어요.

“너도 어인가 가고 있지 않아? 좀 가.” 쿠키는 방어적으로 덧붙였어요.

“여기는 잼스터 영토야. 우리 누구 들어오면 꼭 알아야 돼.” 뽕뽕은 주장했어요.

“등록증 좀 주세요 하하하.” 식행이 놀려서 웃었어요.

잼스터들은 혼란스러워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다른 꿀스터 소녀들은 그것을 보니 배꼽 빠지게 웃었어요. 잼스터들은 너무 화가 났어요. 폭시가 식행에게 다가가서 즐라됐는데 그녀는 조금 옆으로 흔들려 넘어지 않았어요. 상황이 뜨거워졌어요.

식행은 예전에 겨루기에 대한 한 책을 찾아서 읽었어서 자신감이 많았는데 “무기 없이 자기 방어”라는 책 도복을 입고 있는 인간들의 사진을 아직도 기억이 나서 흥분히 미소했어요. 그녀의 친구들은 그런 싸움을 수많이 본 듯 지루해 하품했어요.

폭시는 더 혹신하게 다시 즐라자 당장 코를 찔렀어요. 그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자기를 때린 식행의 손을 깨물었어요. 식행은 뼈격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깨물고 굵으며 폭시를 반격했어요. 수년간의 힘든 훈련, 완벽한 기술과 준비도 빨리 헛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싸움은 고급 겨루기 아니라 뼈격거리는 소리, 찢어진 양털 다발과 굵힌 피부로 전형적인 짐승 싸움이었어요.

한 시간쯤 후 멍과 굵힌 자국, 찢어진 옷을 입고 있는 우울한 잼스터들이 마을로 돌아왔어요.

햄스터 부족은 셀 수 없으리만치 젊은 친구들의 생기는 사건에 익숙해져 있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모두가 희생자들에 대한 동정심에 젖어 경각심을 갖게 되었어요. 물론, 붕어빵처럼 또같이 보이는 동물은 잼스터의 영토를 들어올 뿐만 아니라 무례하게 행동했지요! 부족은 조언을 위해 장로들에게 여쭙보았는데 현명한 마을 이장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 동안에 뽕뽕왕은 우물거리며 춤 같은 동작을 하고 있었어요... 두 자석 사이에 며칠에 전 만들어낸 춤! 드디어 옹이 다 주민들의 시선을 알아차렸을 때 멈춰서 지팡이에 기대며 말했어요.

“네가 그들 알아.”

호기심에 찬 부족은 숨을 죽이고 왕을 둘러 모여 듣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내 할아버지 어렸을 때 잼스터와 꿀스터는 하나 부족이었소. 실제로 잼스터나 꿀스터라는 부족이 없었소.”

“누가 있었습니까?”라고 말한 관중은 일제히 한숨을 하아 쉬고 사랑하는 왕 주위에 편안하게 앉고 있었는데 왕은 슬프게 대답했어요.

“꿀잼스터... 친절한 꿀잼스터라고 했소.”

“꿀잼스터?”

“꿀잼 햄스터?”

사람들이 서로끼리 속삭이었어요.

“응. 맞소.” 뽕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대부터 저 영광스러운 부족은 보물을 찾아 인간들에게 돌려주었었소. 저 것이 그들의 목표이자 임무이자 삶의 의미였데오. 근데 왜 저런지 누구도 몰랐었소. 다만 해야 하라는 말대로 행동했었소.”

뽕뽕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는데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꿀잼스터 부족은 가장 혹독한 추위나 굶는 기간이라고도 누구나 왔든지 늘 보호하고 따뜻하게 먹이를 줘서 숲의 양심적인 지원군으로 살았었소.”

“매머드도요?”

어떤 관객이 뼈격거리는 목소리로 물어봐서 침묵을 깼어요.

“싯! 매머드 오래전 없어졌잖아.”

다른 사람들이 짜증나서 그를 닥치게 했는데 줌보는 왕님에게 말했어요.

“뽕뽕왕님,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어쨌든... 어느 해는 여름 가뭄, 가을 태풍, 겨울 폭설도 있어서 정말 힘든 시간이 왔었소.”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잼들은 혼란스러워했는데 왕의 말씀을 방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식량이 부족했소. 풀잎, 버섯, 말린 씨앗이라도 없었었소. 늑대, 멧돼지, 큰사슴, 토끼 다 굶고 있었었구려...”

“매머드도요?”

뽕뽕은 인상을 찌푸리며 연설을 중단했어요.

“아이고! 누구야? 조용해! 아니면 나가.”

관객들이 왕의 이야기를 너무 듣고 싶어서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꿀잼스터도 고생을 많이 하고 먹을 것과 보물도 별로 없는 탓에 굶을 수밖에 없었었소.”

부족은 그런 것을 듣자 얼어붙어 숨을 죽였어요. 나무저리에 앉아 있는 딱따구리도 노크를 멈추고 눈이 튀어날 정도로 겁에 질렸어요.”

“...그때는 꿀스터라는 꿀잼인은 고생하라 보물 반환하라 저렇게 굶고 사느니 차라리 망명에 가겠다고 했소. 또 누구나 합류하고 싶으면 같이 가자고 그랬소.”

이렇게 말한 뽕뽕은 한숨을 쉬어서 몇 초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그렇게 삼분의 이가 꿀스터를 따라 떠났었소. 나머지는 주민들은 내 증조할아버지 그레이트 잼스터왕과 머물기로 결정했었소. 그런 싸움으로 인해 다 두 개 부족으로 나뉘었소. 꿀스터라는 부족들이 아주 먼 곳으로 이사해서 그들로부터 소식이 안 들었소. 게다가 그 이후로는 너구리를 비롯해 다 숲주민들 중 꿀스터들을 한 본 적이 있는 한 사람조차 없소...”

“매머드도요?”

“안 돼... 왕의 연설이야!”

관객들이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어요. 뽕뽕도 화가 나서 예의없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관중 속에서 찾아 보았는데 찾지 못한 그는 마음을 진정시켜 계속 말했어요.

“이제는 꿀스터 부족이 우리 영토에 감히 올 뿐만 아니라 폭시의 멍을 보니까 우리 조상 부족이 나뉘었을 때처럼 여전히 호전적인 태도가 있다고도 말할 수 있소.”

그런 영설은 토론을 유발했어요. 가장 공격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꿀스터들을 찾아서 복수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런 말을 들은 뽕뽕은 지팡으로 땅을 쳐서 모두에게 왕이라는 듯이 큰 목소리로 했어요.

“무작정 하지 마라. 어린 주민들은 자신을 세우고 평판을 얻으려고 종종 싸우는데, 폭시의 혼란시키는 행동도 신경을 써야 하오. 나중에 꿀스터를 만나면 꼭 친절하고 사귀려고 노력해야 하오. 그래도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어디 있었었는지 왜 돌아왔는지 궁금하오.”

9장. 햄미와 로지의 방문

잼스터와 꿀스터의 싸움 몇 주 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건이 발생했어요.

일출의 빛이 하늘을 간신히 밝혔을 때 폭시가 일어나 옷을 입고나서 침대를 정리해서 일을 하러 떠났어요. 먼저 줌보와 뽕뽕을 깨워서 그들에게 아침 운동을 시켜야 했어요.

줌보와 뽕뽕을 형제라서 같이 살았어요. 예전에 폭시는 피치라는 형, 키티라는 누나가 있었는데 어느날 그들이 버섯을 뽑아러 떠나서 집에 절대 돌아가지 않았어요. 어른들이 피치와 키티를 오랫동안 찾아 노력해도 하나를 못 보았어요.

“뽕뽕, 줌보야! 일어나. 운동할 시간이야” 폭시는 창문을 노크노크했는데 친구들은 졸린 목소리로 “싫어!”, “싫!”이라고 답하면서 더러운 양말을 눈싸움처럼 창문 밖에 던졌어요.

그래도 폭시는 포기 하지 않아서 결국 성공했어요. 물건싸움 끝에는 뽕뽕과 폭시가 일어나서 밖에 나갔어요.

폭시는 덤벨을 잡아 런지하는 김에 줌보와 뽕뽕은 스트레칭을 했어요. 폭시는 덤벨 운동을 아주 좋아하는 반면에 줌보는 반대로 싫어했어요.

어느 겨울 날 폭시의 덤벨은 서리로 덮여져서 줌보의 롤리팝처럼 보였기 때문에 줌보는 이것을 보니 바로 핏났어요. 그러나 덤벨은 맛있기는커녕 금속이라서 혀가 그것에 쑥 붙었어요. 친구들이 오랫동안 머리를 잡아 당기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마침내는 물을 끓여서 혀에 붓을 수 밖에 없었어요. 그로 인해 줌보가 일주일 동안 말을 못하고 부어오른 혀를 내밀고 걸었기 때문에 다른 잼스터들이 가끔 놀렸어요. 너무 많이 고생했어요.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마을 출입문 근처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왔어요. 친구들은 운동을 멈춰서 소음을 따라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서둘렀어요. 그들이 출입문으로 더 다가가서 잼스터들에 둘러싸여 써는 햄미와 로지를 보았어요.

도시에서 온 친구들은 어떤 사고가 생긴 듯 옷이 찢어지고 햄미는 야말로 피곤해 보였어요. 폭시는 놀라서 물어보았어요.

“햄미? 로지? 무슨 일 있었네?”

“목말다...”

햄미는 신음하자 물 한 컵을 덩장 벌었어요.

“배고파...”

햄미가 계속 신음해서 어떤 여자가 사과를 내밀고 어떤 남자는 크래커를 줬어요. 다 간식은 햄미의 입에 당장 사라졌어요.

“혹시... 치즈 있나?” 햄미가 다시 신음했어요.

“무슨 일이야?” 뽕뽕은 갑자기 참을성이 없어졌어요.

“참다 못해!” 햄미는 가슴을 잡아 풀에 넘어졌어요.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본 로지는 물 마셔 말했어요.

“밤새도록 어두운 숲에서 잼스터 마을을 찾고 있었는데...”

“왜오? 집에서 어떤 사고가 났죠?” 뽕뽕은 궁금했어요

“가난해... 치즈 진짜 없나?”

햄미가 우는 중에 로지는 설명을 계속했어요.

“어제는 우연히 소피님이 아버지에게 강아지를 달라고 하고 싫은 햄스터와 앵무새를 팔거나 기부해 달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애완동물이 친구처럼 대해야 해서 버려서는 안 된다는 반대도 그녀는 잔소리를 계속해서 이게 마지막 빨대였는데...”

“꿈쩍해.” 햄미는 벌써 치즈를 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햄미와 떠나기로 마음먹었는데 금붕어들은 어항에서 도망갈 수 없었어요... 혹시 우리는 잼스터 마을에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로지는 절망적으로 보였어요.

“물론, 원하는 만큼 여기 머무를 수 있어요!”

잼스터 친구들이 아주 기쁘게 돼서 햄미와 로지를 폭시의 집으로 데려 갔어요.

햄미가 집에 들어오기 무섭게 그의 칼라를 벗었는데...

“안녕! 내 이름 햄미예요.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내가 길을 잃고 실종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인간말을 잘 못 해서 주소를 설명할 수 없어요. 내 소피란 주인을 연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보상을 꼭 줄게요! 주소: 자유시 평화로 7.”라는 글을 보고 슬프게 탄식해서 밖에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과장하게 말했어요.

“안녕! 새로운 삶이 시작돼서 돌아갈 방법 없어졌다.”

“자유!” 줌보가 햄미의 어깨를 두드리며 응원했어요.

그날부터 햄미와 로지는 폭시의 집에 남매로 같이 살게 돼서 애완동물에서 숲주민으로 변했어요.

10장. 폭시와 친구 함께 농사를 짓기

며칠 후 일찍 아침에 햄미의 코골기와 로지의 잠꼬대로 인해 깨어온 폭시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중이었어요.

“오늘 꼭 좋은 일을 해야겠지. 정말 좋은 걸 의미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폭시는 좋은 날을 기대했어요.

“그럼... 뭘 할까?”

햄미는 훌쩍 “크래커!”라는 잠꼬대를 했어요.

폭시는 사상이 생겼어요. 그가 기상해서 옷을 입고나서 침대를 정리해서 운동하러 떠났어요. 로지와 햄미는 운동을 안 했어요. 햄미는 아직도 피로가 있다고 했으나 로지는 앵무새라서 항상 날씬하니까 운동은 필요가 없어서요.

다시 한 번 양말과 슬리퍼를 기피해야 양쪽 쏠리는 폭시가 친구들을 여전히 깨워서 운동을 빈틈없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뽕뽕과 줌보에게 자신의 생각을 나눴어요.

“그럼... 날 도와주면 아주 고맙겠어.”

“그렇구나.”

뽕뽕이 열정이 별로 없었던 반면에 줌보는 관심을 가졌어요.

“뭘 드릴까?”

“계곡 근처 숲 가장자리에는 작은 음모가 있고 여러 농부들이 말과 쟁기를 사용해 땅을 갈고 있는데. 소작농을 도와 주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 그들이 저녁을 먹으러 떠날 땐 우리 땅 갈길 마치는 게 어때? 그거 좋아할 것 같아...”

폭시가 환상적으로 설명했어요.

“햄미도 참여가지?”

“햄미는 아직도 피로해다던데... 나 다시 물어볼게.”

“난 농부가 아니라 예술가야. 이렇게 우아한 손은 육체 노동할 수 있겠어?”

햄미가 담요에 계속 쌓이면서 손을 보였어요.”

“여긴 극장 아니고 숲이라 야생 동물로 가득 차 있잖아. 햄미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자! 일어나서 옷을 입으세요. 이걸 네가 더 강해지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아휴... 알았어.”

이렇게 말한 햄미는 반바지를 빨리 입었어요.

정오쯤에는 폭시의 엄마가 친구들을 출구로 데려다 가서 그들은 숲 가장자리로 다녔어요.

깨끗함을 좋아하는 폭시의 어머니는 자식들을 목욕시켰을 때 거친 스폰지로 문질러 닦았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 중에 스폰지라는 별명으로 알려졌어요.

숲 가장자리에 도착한 친구들은 작은 나무 뒤에 숨어 일 중 있는 두 명의 농부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열심히 일하던 농부들은 지쳐서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그들은 먼저 말에게 마실 물을 줘서 먹을 건초를 놓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거대한 참나무 그늘에 들어갔어요. 점심식사 후 편안하게 누워 밀짚모자를 이마에 씌우고 낮잠을 잤어요.

갈색이고 회색 점이 있었던 암말은 날씬하고 늙어 보였어요. 건초는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만큼 맛있어서 햄미와 친구들이 눈에 띄지 않게 천천히 다가왔는데 뭔지 모르는 말의 등을 올라 탔어요. 그러나 말이 자동차처럼 작동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엔진을 찾고 운전할 방법을 구하고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가려움을 드른 말이 먹기를 멈췄어요.

“폭시, 이 탈것 운전할 줄 알아?”

줌보가 긴장하게 물었어요.

“나도 몰라. 그를 처음으로 타고 있거든.”

“아마 음성 제어로 해 볼래?”

뽕뽕이 주저하게 제안했는데 줌보는 그 생각을 좋아했어요.

“그렇죠! 말 되네.”

폭시는 말을 잘 살펴보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 명령은 말 귀에 대고 말해야 할 것 같은데 한 명은 왼쪽 귀에, 다른 한 명은 오른쪽 귀에 대고 말해야 운전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왼쪽 귀에 명령하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 귀에 하면 오른쪽으로 갈 수 있겠어.”

그렇게 말한 줌보는 바로 말의 왼쪽 귀로 옮기다 앉았어요. 햄미는 위험을 잘 이해해서 소심하게 반대했어요.”

“안 돼! 큰 사고가 날 것 같아... 우리 고통받을 지도 몰라!”

“걱정 하지 말! 잼스터 방식을 보여줄게.”

뽕뽕이 햄미를 격려했어요. 그러나 무서워 한 말은 긴장을 할수록 더 떨게 되고 곧 폭발하려는 증기 기계처럼 보였어요.

“대박! 난 오른쪽, 줌보는 왼쪽... 뽕뽕은 앞으로 가는 걸 담당해.”

폭시는 기쁘게 말해서 오른쪽 귀에 앉았어요.

“혹시... 브레이크할 줄 알아? 브레이크 페달 어딘지 몰라...”

뽕뽕 목소리에는 불안이 담겨 있었지만 모두가 흥분해져서 뽕뽕의 말에 주의하지 못했어요.

“하나, 둘, 셋... 시작!”

폭시와 줌보가 말의 양쪽 귀에 같이 소리쳐서 말을 깜짝 놀래켰어요. 늙은 말이 얼마나 무서워 해졌는데 기운차게 일어나서 울으며 앞으로 돌진했어요. 말에 쫓은 쟁기는 땅에 파고 수십 미터 쟁기질해서 돌고래가 물에서 나온 것처럼 땅에서 튀겨져 나왔어요. 공포에 질린 말이 계곡의 경사면을 달려 내려가서 잼스터를 두려워 쫓어요. 그들은 당장 중지하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중지!”

폭시가 오른쪽 귀에 외쳤어요.

“중지! 야! 안 돼! 중지!”

두려한 줌보는 왼쪽 귀에 소리쳤어요.

“세상에! 형아, 말 멈춰! 너무 무서워!”

눈이 튀어날 정도로 무서워 한 뽕뽕이 형에게 외쳤으나 햄미는 말 없이 말 털에 꼭 잡고 짜증을 보여서 “잼스터 방식”에 실망하는 듯이었어요.

말은 경사면을 달려 내릴수록 더 빨라졌어요. 쟁기는 무중력 막대기처럼 말 뒤에서 튀면서 풀, 덩불, 작은 나무를 깎고 있었는데 뒤에 비뚤어진 길을 남겼어요. 큰 나무에 갑작스럽게 달라붙은 쟁기가 찢어져서 가지에 매달렸어요. 그 때문에 말이 더 비틀거리서 잼스터는 바로 떨어졌다. 수십 미터를 달린 말은 결국 지쳐서 멈춰 몸이 덜덜 떨렸어요.

풀밭에 누워 있는 잼스터와 햄미는 농부들이 계곡의 경사면을 따라 암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니 가장 가까운 덩굴에 숨었어요. 농부들이 말을 검사할 때 문제 하나도 못 찾았어요. 벌에 물린 것이 틀림없다며 뜻밖의 고통으로 도망갔다고 추측한 그들이 말을 농장으로 이끌으려다가 땅의 흙 덩어리에서 금색으로 빛나는 것을 발견했어요. 농부들이 아래로 쏠려서 은화와 금화로 가득 찬 깨진 항아리를 들어 올려서 깜짝 놀랐는데 형용할 수 없으리만치 기뻐졌어요. 기쁘게 뛰어오르고 포옹하는 그들이 말에게 감사하는 말을 쫓어요. 말은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해서 고개를 의심스럽게 저었어요.

폭시, 줌보, 뽕뽕과 햄미는 몇 분간 덩굴에서 누워 농부들의 놀라움을 기다리고 기뻐했어요. 고통에 신음하고 멍과 붓기를 짚으며 마을로 갔어요. 폭시는 가는 길에 그 사고의 이유는 뽕뽕의 잘못이라고 비난해서 친구들은 거짓말이라서 싸울 만큼 화가 크게 났어요.

그래도 그들은 곧 화해해서 몇 분 후에는 이미 농담을 하고 서로를 “운의 기수”라고 불렀어요. 쟁기질이라도 즐겁게 성공해서요.

안타깝게도 농부들이 누가 대박을 찾도록 도왔는지 결코 알지 못했어요.

11장. 햄미와 로지의 떠남

햄미와 로지가 마을로 이사온 지 몇 주가 지났는데 잼스터들은 새 주민들에게 매우 기뻐했어요. 요즘 자연스럽게 즐거움을 잘 주는 햄미는 수많은 쇼를 하고 다양한 트릭을 보이는 반면에 로지는 날을 수 있으니 항공 순찰해서 마을 주변에서 일어난 사고를 장로들에게 보고했어요. 그러나 가벼운 기간이 오래 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에 어떤 잼스터가 큰 목소리로 다 주민들을 깨웠어요. 숲 속에서는 인간 소녀가 햄미와 로지라는 자기의 실종된 친구를 찾고 울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녀의 부모들도 실종된 애완동물을 찾고 있었어요.

“어머...”

햄미가 가슴을 잡아 신음하며 풀밭에 앉았어요.

“마음 다시 아프네. 로지야, 어떻게 해야 하지?”

로지는 모른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주민들이 회의를 하려고 모였어요. 토론 중 요즘 꾸준히 연습하며 한여름에 마을 댄스 페스티벌도 개최할까 계획하는 왕은 지팡이에 기대어 말도 없이 자석 춤 동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긴 침묵줘서 드디어 말했어요.

“로지와 햄미는 우리 대안가족이 돼도 그들이 잼스터 마을에 남을지 인간 가족에게 돌아갈지 자유롭게 해결해야 하오. 내 손자처럼 돼서 보고싶겠소.”

왕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연설을 들은 햄미도 눈물을 흘렸어요. 잼들은 “가지마!” 또는 “내 집은 네 집”라는 소리를 쳤어요.

울고 있는 햄미는 푸른 손수건을 흔들어서 모두에게 그의 말을 좀 들으라고 요청했어요.

“잼스터 부족 이렇게 친절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결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로지하고 함께 고려하고 잘 상의해야 합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일 것 같습니다.”

햄미가 로지와 밤새도록 토론하더니 인간 가족에게 돌아가기로 해결했어요. 결정을 말해서 모두를 안고 작별 인사를 했어요.

“나는 햄미를 인간 도시에 잼스터 외교관으로 임명하오.”

왕은 햄미를 하라버지처럼 크게 껴안았어요.

“열심히 노력하겠어요... 똑똑하고 잘생긴 외교관이 되겠어요.”

로지 안전하시오. 햄미를 좀 돌보시오.”

로지는 절했어요. 그래서 잼스터 친구들이 햄미와 로지를 숲 가장자리로 데려다 갔어요.

인간들이 숲 가장자리에서 이미 떠나서 발자국 밖에 없었어요. 친구들은 사람들이 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하니 거기에서 캠프하기로 했어요. 밤에는 작은 모닥불 옆에 앉는 그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험을 추억했어요.

아침에는 인간들이 숲 가장자리에 돌아와서 로지와 햄미를 찾고 있었어요. 햄미는 새 친구들을 껴안았어요.

“곧 마나!”

“넌 이제 진짜 숲주민인데 그걸 잊지 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쭌보가 가려고 하는 햄미에게 말했어요. 폭시는 덧붙였어요.

“금붕어들한테 안녕이라고 말해줘!”

햄스터가 마지막으로 돌려 작별인사를 하나 로지는 날개를 흔들었어요. 그들이 앞으로 좀 걸어서 인간들의 눈빛에 나왔어요. 그 딸은 실종된 애완동물을 보니 당장 즐겁게 비명하면서 그들에게 달려갔어요. 사과를 중얼거리며 자신의 친구들을 포옹했어요. 그동안 동창회 장면을 지켜보는 잼스터들은 몇 분 써서 마을로 향했어요.

12장. 꿀스터들과 한 싸움만 더

잼스터는 꿈보와 지난 싸움을 쉽게 잊었어요. 보복적이지 않고 마음씨가 좋은 부족이라서 다른 숲 나라들과 평화롭게 살았어요. 만약에 해소할 수 없는 갈등이 생긴다면 잼스터들이 강력한 힘이 들고 하나가 되었어요. 그들은 키가 크지 않고 빠르지 않아도 불구하고 일관성, 규율 및 팀 정신 덕분에 전투 중 전쟁 기계처럼 항상 승리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동물조차도 잼스터를 함부로 하기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는 적이 달랐어요. 이상은 아니더라도 잼스터인만큼 두려움이 없었어요.

어느 날에는 명이 들은 조커 잼스터가 눈물흘리며 마을로 달려 들었어요.

조커는 자랑스러운 편이라서 아슬아슬한 행동으로 유명했는데 다 사람들을 똑똑한 사람(“꿀”)과 어리석은 사람(“똥”)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누었어요. 물론, 자신을 “가장 꿀”이라고 했어요. 한때는 그가 과시하도록 자전거를 혼자 만들고 “번개 바이크”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나무에 충돌한 사고 이후 부족이 조커를 “꿀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고생한 조커는 흐느끼고 뺨에 눈물을 흘리며 주민들에게 꿈보들이 쏙 다가가서 마을로 가지고 갔던 보물을 모두 빼앗았는데 뒤통수를 때리고 웃으며 쫓아냈다고 이야기했어요.

조커가 보물을 찾는 능력도 평범하거니와 의사소통 능력도 별러 없어도라도 잼스터들은 그런 문제를 무시할 수 없겠어요. 범인을 꼭 잡아야 하지요. 그럼 어떻게 잡을까?

폭시, 줌보, 뽕뽕은 즉시 탐정 팀이 임명되었는데 엉엉 우는 조커와 같이 범죄 현장으로 향했어요. 그러나 현장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조커는 덤불 방향을 가리키면서 마음 너무 아파서 이상 갈 수 없다고 말해서 마을로 도망쳤어요. 저런 행동은 친구들을 혼란시켜서 집중하는 데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범죄 현장을 점검할 시간이 되었어요.

“발자국은 닳은 모양이야”.

뽕뽕은 구겨진 풀발에 발자국을 가리키면서 자기의 발을 비교했는데 덧붙였어요.

“맞아... 하나는 우리 마을로 인도하나 다른 거... 숲 속으로?”

“우리 이 근처에서 이렇게 멀리 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폭시는 신중하게 말했어요.

다음에는 나뭇가지와 잎사귀로 몸을 감춰서 변장하는 잼스터들은 모르는 길을 따라 가고 있어요. 때로는 발자국이 사라졌지만 그들은 부러진 가지와 외계인의 향으로 방향을 찾아 계속 갔어요.

드디어는 울창한 수풀을 헤쳐서 개울을 건넌 친구들이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에 접어들었는데 가까운 언덕 정상으로 천천히 올라가서 아래 펼쳐진 마을이 보였어요. 저 마을은 언덕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아늑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잼스터 마을과 아주 유사했어요.

“사람 많네.”

계곡은 참으로 사람이 붐볐으니 뽕뽕이 흥분에 휘파람을 불었어요.

“예전에 여기구를 탔을 때 그 마을을 쌍안경으로 봐서 침입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

줌보가 자극해 침입을 기다릴 수 없었으나 폭시는 서슴게 말했어요.

“침입할 게 아니라 마을로 내려가서 얘기하는 게 어때?”

“지루해...”

줌보는 반대하려다가 덤불에서 목소리가 갑작스럽게 들렸어요.

“꿈짜마! 널 체포한다! 손 들어.”

꿀스터 경찰들이 범죄자들을 잼스터 마을의 중앙 잔디밭과 유사한 잔디밭으로 데려다 갔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마침내 주위를 돌아보고 움직일 수 있었어요.

“어머... 널 알아!”

쭌버는 변장을 벗어 외쳤어요. 경찰들은 식행, 쿠키와 빙슈라서요.

식행은 그런 것을 듣자 나갔다 하라버지처럼 보이는 장로와 함께 다시 들어왔어요. 그는 우아한 회색 머리가 있고 뽕뽕의 양과 비슷한 왕도 쓰고 있었어요.

“외계인들 안녕하세요. 나는 뽕뽕왕소.”

“뽕뽕왕 비해 더 건강하게 보이시네.”

쭌버는 친구에게 속사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잼스터들은 인사도 했어요.

“왕 이름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뽕뽕이 왕을 칭찬했어요.

“고맙소. 내 딸은 네가 예전에 만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했소.”

“그렇습니다.”

폭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왜 왔소?”

“어늘 아침 꿀스터 부족인이 잼스터 부족인을 때리고 가지고 있었던 보물을 빼앗았다는 신고를 받았는데 조사하러 왔습니다.”

폭시가 답하자 다른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거짓말! 그는 싸움을 일으켰어!”

“그렇지. 그는 무가치한 쓰레기를 찾았는데 꿀스터들이 반지하고 동전을 가지고 있는 걸 보니 바로 빼앗으려 했어. 이 보물은 꿀스터 보물이잖아. 이제 네 마을에 좀 돌아가. 여기 다시 싸우러 오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한 부족인들이 개스터를 놓아줬어요. 친구들은 일몰 전에 마을에 도착했어요. 잼스터 부족이 소식을 나누고 어떻게 해야 할 결정을 하려고 햇불과 촛불에 모여 있었어요.

큰 토론이었어요. 일부는 복수나 누구와도 싸움을 좋아하니까 전쟁을 통해 꿀스터들에게 참교육을 시켜주자고 주장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꿀스터들과 회담을 개최하고 싶어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살기 원했어요. 뽕뽕왕이 회담을 원해도 전쟁에 투표하는 쪽이 다른 쪽을 비해 더 시끄러워서 이겼어요.

“전쟁이라? 알았소. 그래도 이기려면 내 말대로 하오. 멍이나 상처 금지. 따르지 않으면 더 악화시킬 거야지!”

13장. 소다 로켓과 소시지 공군

잼스터의 갑옷은 빨간 반바지, 빨간 재킷, 갈대 바람총과 베리 총알이었어요. 갈대 바람총은 작은 관에 베리를 넣고 입으로 불어 발사하는 단순한 사출무기였어요. 그 무기는 장과를 빨아들여 적의 얼굴에 날려버릴 만큼의 힘이 필요했으니까 잼스터는 꾸준히 훈련했어요. 그런 분대는 베리 저격수라고 불렸어요.

또한, 솔방울을 발사해서 공격하는 새총도 있었어요. 그런 새총의 고무줄을 당기고 쏘기 위해서는 두세 명의 잼스터가 필요했어요. 그런 분대는 소나무 콘 야전포병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잼스터 군대는 파이프를 불고 북을 덜그럭거리며 출발했어요. 덤불 앞에서 군대가 갈라져서 한 분대는 언덕 오른쪽으로 돌다가 갔는데 “잼스터 만세!”와 “우리가길게!”라고 외쳐서 겁없는 정신을 표현했어요.

반면에 두 번째 분대는 왕의 지도하에 앞으로 갔어요. 뽕뽕은 언덕 정상에 그의 신하 몇 명을 보냈는데 그들은 큰 목소리로 전투에 꼴스터를 불렀어요.

설득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 파란색 반바지와 재킷을 입고 갈대 바람총과 새총을 가지고 있는 뽕뽕의 군인들이 즉시 나왔어요. 그들은 언덕을 빠르게 올라가서 베리로 포격을 시작했어요. 언덕에서 있는 잼스터의 전진 분대는 작아서 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뽕뽕왕은 주력군을 보내서 베리와 솔방울을 던지는 전투는 치열하게 되었어요. 모두가 얼굴을 찌푸리면서 짹짹거리고 아주 큰 소리를 질렀어요.

뽕뽕은 나이가 많았지만 뛰어난 사령관으로서 잼스터 부족이 다 존경했어요. 많은 전투를 겪은 왕은 경험이 풍부하고 전략심도 있고 냉정형이었어요.

“여기 봐...”

왕은 나뭇가지를 가지고 북시, 뽕뽕과 줌보가 예전에 본 꼴스터 마을 지역의 지도를 땅에 그려서 가르쳤어요.

“적마을이 잘 보호돼서 그들이 공격을 쉽게 막을 테니까 우리는 마을 공격할 게 아니라 군대 일부를 언덕에 배치하여 적군대를 우리 방향으로 나가도록 속입시다. 잼스터 군대가 적다고 생각해 하는 꼴스터들이 언덕을 올라갈 때 우리는 군대의 사분의 삼이 공격하여 적의 주의를 돌리겠소. 이때는 나머지는 군인들이 밧줄을 타고 언덕 위에 올라와 적진을 측면에서 공격하오. 그럼 염탐하고 싶은 사람 누가?”

뽕뽕은 평가하는 눈빛으로 모두를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에 폭시가 벌을 손으로 흔들며 쫓아내고 있어서 왕은 그것을 보니 폭시가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오해가 되었는데 엄숙하게 말했어요.

“알았소. 폭시는 로켓 조종사로 고속 공중정찰을 하오. 폭시, 실망시키지 마시오.”

“어...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폭시는 꼴벌 때문에 산만하고 하나도 못 들어서 자신이 무엇을 하기로 동의했는지 알지 못했어요.

뽕뽕은 한숨을 지으며 말했어요.

“나는 달콤한 탄산수 한 병에 민트 캔디를 넣으면 아주 강력한 소다 스트림이 빠져 나올 거라고 말씀하신 조상의 전설을 기억하오. 그래서 소다수는 그 병과 병에 묶은 로켓 조종사를 공중으로 들어올릴 수 있었대요.”

“저를... 병에 묶어야 한다면서요?”

폭시가 창백해져서 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병이 폭발할 수 있어서 너무 무서워... 제발... 안 돼...”

“넌 괜찮을 거야. 폭시, 영웅이 되고 싶지 않겠어?”

줌보, 뽕뽕과 등 잼스터들의 킁킁 웃는 소리에 폭시가 준비하러 터덜터덜 갔어요.

잠시 후, 높은 플랫폼 위에 끌어 놓은 소다병에다가 병에 묶은 폭시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제는 민트 캔디를 병에 던질 시간이 됐는데 관중 속에서 누군가 하늘을 가리키며 외쳤어요.

“저 거 봐! 꿀스터는 풍선을 발사했어!”

모두가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에 풍선에 달린 바구니가 잔잔히 날고 있었어요. 그 풍선은 소시지 포장 필름이라서 하늘을 나는 거대한 소시지 같았어요.

“하하! 대체 뭐야?”

“꿀스터 소시지 공군!”

“그들 이제 확실히 이길 거야. 개웃겨!”

그렇게 말한 잼스터들이 배꼽이 굴러다니게 빠지게 웃었어요.

소시지 풍선의 모양은 얼마나 웃기고 놀라운지 지나던 까마귀가 그를 보다가 바늘과 원뿔이 떨어질 정도의 위력으로 소나무에 부딪쳤어요.

식행이 바구니에서 엿보고 잼스터의 위치를 파악하도록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두 개의 붉은 깃발로 꿀스터 군대에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염탐꾼! 안 돼! 공기에서 보는 게 속임수이야!”

한 잼스터가 외쳤는데 다른 사람은 지지했어요.

“로켓 발사하라!”

폭시는 그를 들어 보니 더 창백해졌지만 침착했어요. 잼스터들은 캔디를 넣고 뚜껑을 빨리 닫았어요.

“왕님, 언제 열어야 합니까?”

뽕뽕은 왕실 망토 아래에서 모래시계를 꺼내 곰곰이 생각하며 입술을 움직이었어요.

“뭐... 셋까지 센다! 하나... 둘...”

온 부족이 잠잠해져서 폭시는 두려움에 신음하며 말했어요.

“잠깐만. 어떻게 착륙해야 할지...”

“셋!”

뽕뽕왕이 손을 흔들자 잼스터들은 뚜껑을 열었는데 소다 스트림이 단물을 풍부하게 쏟아지며 비명치는 불쌍한 폭시를 하늘로 올렸어요.

“실제로 그는 어떻게 착륙할까요?”

쭌보가 걱정하게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그 동안 탄산 로켓은 폭시를 들고 식행의 방향으로 나선형 궤적을 날았어요. 그 것을 본 꿀스터들은 걱정스러워서 식행에게 소리치며 위험을 알리는 듯이 손을 흔들었어요. 그래도 식행은 전장만에 주의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로켓을 보지 못했어요.

그녀가 깃발을 떨어뜨리고 공포에 질려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소다 로켓이 소세지 풍선에 펴 부딪히고 폭시를 묶은 띠가 터지고 잼스터가 바구니에 날아 빠졌어요. 식행은 찬소리하려다가 바구니에서 떨어질 뻔했지만 바깥 쪽 가장자리를 잡아 매달렸어요. 뚫린 풍선이 수축함으로 바구니가 기울어졌기 때문이었어요.

“아양! 제발 도와줘!”

꿀스터와 잼스터 부족은 공포에 얼어붙었는데 바구니 가장자리에 매달려 있는 식행을 숨을 죽이면서 바라보았어요.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바구니 안에 오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어요.

식행의 비명야말로 폭시를 재빨리 의식하게 한 것이었어요. 가장자리로 달려간 폭시는 아래로 쓸려서 먼 땅을 보니 공포에 질려 자신의 가슴을 잡았어요. 그러나 식행은 계속해서 필사적으로 비명을 질러서 폭시는 드디어 자기의 두려움을 이겨냈어요. 그는 다시 아래로 쓸려서 식행에게 손을 뻗어 그녀를 바구니 안으로 끌어들이었어요.

잼스터와 꿀스터는 손뼉을 치며 식행의 구조를 보고 즐겁게 외쳤어요. 그녀는 미소지어 손을 흔들어서 이는 동료 부족민들에게 엄청난 기쁨을 선사했어요. 반면에 폭시는 자신이 경험한 공포에 떨면서 바구니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진짜 화려했군요!”

“이제 잼스터 영웅이네!”

잼스터들이 폭시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며 승인에 고개를 끄덕이었어요.

그 동안 소시지 풍선은 수축을 계속 해서 천천히 추락했어요. 서나 분 만에 후에 바구니가 땅에 닿았어요. 식행은 별떡 일어나 어리둥절한 부족들에게 우아하게 절을 했으나 폭시는 계속 안에 앉아서 겁에 질려 몸을 떨었어요. 그러나 그의 부족 사람들은 그것을 예외적인 겸허함으로 이해했어요.

“겸손하네.”

“응, 많이 수고했죠!”

그렇게 속삭이는 잼스터들은 폭시에게 윈크를 했어요.

14장. 전투 조롱

싸우고 있는 부족들은 폭시의 용감한 행동을 보니 싸울 의욕을 점점 잃고 화해하고 싶어 했는데 그 순간에 수많은 소시지 풍선이 하늘에 보였어요. 꿀마을에서 이룩한 풍선은 적에 캐러멜 시럽을 살포하고 솔방울을 던지는 꿀스터 폭격기 분대였어요. 그러나 처음비해 이번의 풍선은 더 무섭게 생겼어요. 소시지 필름 뿐만 아니라 치즈 필름, 스낵 비닐 봉지 등으로 만들어낸 풍선도 있었으니까요.

잼군인들은 그렇게 웃기는 항공기를 보니 빵빵터지고 웃었는데 다음 순간에 어떤 일이 앞두고 있다는 단서가 없었지요. 그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캐러멜 시럽, 솔방울로 용단폭격당했어요.

“어떻게 감히! 니가!”

잼들은 화를 내며 달달한 소다 병을 발사하도록 서둘렀어요. 수십의 병이 일사천리 콜라 맛의 거품을 내며 하늘로 치솟았어요. 소다 로켓은 넓은 호를 그리면서 소시지 풍선을 지나고 잼들과 꿀들에 단 샤워를 쏟았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풍부한 단 물방울에 장엄한 쌍무지개가 모두를 놀라게 하면서 일어났어요.

빙슈와 쿠키도 바구니에서 무지개를 감상해서 산만함으로 인해 실수로 꿀들에 시럽과 솔방울을 던졌어요.

“이런 젠장! 대체 하는 거야?”

“야! 머리 써!”

“감히 착륙해! 꾸짖을 거야!”

꿀들이 화를 내며 주먹을 휘두르며 소리쳤지만 빙슈와 쿠키는 하나도 못 들어서 그만하기는커녕 색종이 조각과 반짝이로 용단폭격당했어요. 꿀들과 잼들도 모두 벌써 시럽으로 덮여 있고 쌍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로 격노시키는 행동이었어요.

“무슨 난리야... 이걸 전쟁이라? 오히려 코미디 공연 아니지? 부끄럽네.”

뽕뽕왕은 언덕 위에 서서 쌍안경을 통해 꿀전사들을 살펴보며 으르렁거렸어요.

“전투 아니라 조롱. 서커스 광대로 일해야 해.”

잼전사를 살펴보는 뽕뽕왕은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침내 잼들과 꿀들은 전투의 무의미함을 깨달아서 양측은 하얀 깃발을 드는 협상가들을 휴전하려고 보냈어요.

협 중에서는 양측이 동등하게 잘 전투했다고도 해서 승자를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불가침에 입을 모아 합의했어요. 모두는 서로를 궁금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웃음을 터뜨렸어요. 색종이 조각과 반짝임으로 시럽에 묻힌 전사들의 모습은 웃음을 일으켜서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꿀스터들은 꿀마을을 정리하기 시작했으나 잼스터들은 자신의 마을로 떠났어요. 그런데 잼들과 꿀들은 모두 자사의 부족은 승리하고 상대방은 겁쟁이었다는 것을 믿었어요.

폭시, 줌보, 뽕뽕은 집에 아주 먼 길과 모처럼 큰 빨래가 앞두고 있었어요.

15장. 홍수

그런데 여름이 끝났어요. 가을은 폭우철이라서 가을이 왔을 때 잼스터들은 집에서 난로 앞에 쉬기 마련이었어요.

어느날 마을로 돌아온 잼스터 순찰들이 꿀스터 지역의 계곡에서 생긴 비상 사태를 보고했어요. 폭우로 인해 계곡의 천물이 범람해서 제방이 무너졌으니까 꿀마을이 물에 잠길 위험이 생겼어요. 게다가 전투 중 찢던 길의 존재도 상황을 악화시켰어요. 그래서 꿀들이 홍수를 방지하려고 운하를 파랴 댐을 만들랴 대처할 수 없고 시간도 부족하다는 뉴스가 잼들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조커를 비롯한 몇몇 사악한 사람들은 꿀스터의 불행을 비웃었지만 대부분은 꿀부족을 동정했어요. 홍수는 큰 문제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생각에 잠긴 뽕뽕은 해결책을 찾으며 중앙에 잔디밭을 좌우로 걷고 있었어요. 왕이 결단을 고심했어요. 드디어 폭시가 부족 앞에서 생각을 제안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냈어요. 그는 주민들이 모두 모였을 때까지 기다려서 목소리를 가다듬고 셔츠를 곧게 편 채 머뭇거리고 말했어요.

“아시다시피 꿀스터와 잼스터는 한때 한 부족이었습니다. 두 개 부족으로 나뉘는 후부터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털 색깔이 변했고 서로 돕는 것 보다 더 싸웁니다. 반바지를 입는 방법조차 다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여전히 하나입니다. 우리는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려울 때 등을 돌리지 말라고 봅니다. 돕지 않으면 꿀마을은 물에 잠겨서 꿀스터들은 노숙자가 될 지도 모릅니다. 겨울이 곧 오는데 그들이 새 집을 지을 수가 있겠을까? 다음에는 뭔가요? 꿀들에게 반드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똑똑한 폭시가 감동적인 연설을 마치자 줌보가 친구를 응원하려고 외쳤어요.

“역시 꿀여자들 이빠!”

뽕뽕도 덧붙여서 말했어요.

“맞아! 왕의 이름도 꿀죠!”

잼들은 찬성하는 듯 중얼거리고 뽕뽕왕은 폭시를 마음이 맞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잼들은 다른 캠페인을 준비하게 됐지만 이번에는 전쟁 캠페인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꿀주민들이 마을 근처에서 공사 중이었어요. 도랑을 파야 천물이 배수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들은 실 텅 없이 비록 도랑을 파도 홍수가 강해져서 마을은 순식간에 물에 잠길 수 있었어요. 꿀들은 만일을 대비해서라도 텃목에 귀중품도 신거니와 대피를 위해 풍선 보트도 준비했는데 힘은 이미 빠졌었어요. 그리고 얼굴, 털, 옷 등이 다 얼룩져 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도랑을 파고 있는 쿠키는 우연히 낫선들을 알아차렸어요. 낫선들 반바지를 어디선가 그를 알아보았는데...

“식행, 빙슈야! 잼들 돌아왔어! 뭘 원하지?”

“글세. 다시 놀리려고 왔지... 계속 파자.”

투덜거리는 빙슈가 눈물을 참을 수 없어서 땅에 앉아서 코를 닦고 눈물을 흘려 보냈어요. 그것을 본 식행이 말도 없이 한탄하며 젖은 땅을 계속 팠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도 낫선들을 알아차려서 멈췄는데 그들 중 하나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왜 봐?”

“야, 그럴 시간 없잖아. 나가!”

불쌍한 그들은 절망감을 감추지 못했지요. 뽕뽕은 왕의무를 보류해서 다른 주민들과 동등하게 땅을 파고 있었는데 잼들을 보니 흠과 땀을 닦아서 침입자들을 의심스러운 눈빛을 쬐어요. 자신감을 가져서 삽을 땅에 꽂아 어깨를 용감하게 폈어요. 옆에는 식행이 서 있었어요. 뽕뽕왕이 이끄는 잼들은 언덕을 내려 마을에 들어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나는 잼스터들의 뽕뽕왕소. 모자 벗어 인사를 못 해서 미안하오. 내 왕관이 머리에 오랫동안 꽂 끼여 있는데 뺄 수가 없다. 하하, 가렵다... 어쨌든... 떠다니는 섬마을로 변하고 있지요?”

“그래.”

“뭘... 사실은 구호하려고 왔네. 소식을 알고 보니 도와주기로 했는데.”

“정말? 해주시면 신세를 진게 감사하겠네...”

뽕뽕은 그것을 기대하지 않고 깜짝 놀랐어요.

“괜찮아. 우리는 싸우느니 어쩌니 해도 한 혈통이라 도와 줘야지... 자 여러분, 시작합시다!

뽕뽕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발굴지로 향했는데 잼들도 따라 갔어요.”

힘이 많은 잼스터들은 아주 도움이 되었어요. 잼들의 기꺼움을 본 꿀스터들은 신나게 땅을 계속 팠어요. 그렇게 더불어 노동하는 부족들은 일몰까지 도랑 프로젝트를 끝냈어요. 끝내자마자 천물이 댐을 뚫어서 도랑으로 따라 흘렀어요. 비가 우연히 멈췄어요.

황금빛 얼굴로 석양을 마주하는 부족들이 언덕 정상에서 흐르고 있는 물을 내려보고 있어요. 더러운 물흐름은 강한 만큼 경로에 모든 것을 쓸어 버렸지만 다행히 꿀마을을 우회했어요. 꿀스터의 주거는 안전했어요.

어더운 황혼 속에서는 잼들과 꿀들이 서로를 어깨를 껴안으며 축하하고 두드렸어요. 어떤 꿀들이 안도해서 울었어요.

“여러분, 이제는 파티합시다! 다 숲주민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축하하지 않다면 나는 은퇴할게!”

뽕뽕은 모두처럼 너무 피곤해졌지만 행복한 미소를 띠었어요.

꿀들은 식탁을 빨리 정리해서 모닥불을 피우고 음식을 차려 접대했어요. 모닥불의 빛은 낮빛처럼 밝았어요.

“넌 생각보다 더 친절하단 사람이야.”

빙슈가 옆에 앉아 있는 줌버를 칭찬했으니까 줌보는 바로 기뻐해졌어요.

“고맙네!”

그리고 폭시에게 얼굴이 빨개진 채로 말했어요.

“너도... 친절해.”

옆에는 몇 개의 빈 자리가 있었는데 두 명 꿀스터들이 들어와서 앉았어요. 그러나 뭔가 독특했어요. 그들은 형제자매처럼 닮았을 뿐만 아니라 친숙해도 보였어요.

“애들아!”

폭시의 어머니 갑자기 소리쳤어요.

“엄마? 무슨 일...”

“피치! 키티!”

그 형제 자매는 어렸을 때 실종된 피치와 키티였어요. 꿀들은 그들을 구해서 입양했어요. 폭시는 오랫동안 실종된 형제 자매를 바로 안아 주었고 모두도 그들대로 따라 서로를 껴안았어요. 그것이 그날의 두 번째 기적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파티는 행복하고 피곤한 꿀잼들이 잠들 때와 아침까지 계속되었어요.

16장. 인간들에게 돕기

꿀마을을 구함의 축하 행사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어요. 부족들은 서로를 방문해서 파티를 했어요. 그렇게 끊임없이 갔다 오고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해서 인구가 혼잡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날 로지와 햄미가 다시 왔어요. 아침 안개 때문에 내리는 숲정령들처럼 나타났어요. 처음에 그들을 본 잼스터는 술 많이 마셨음으로 인한 환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햄스터와 앵무새가 접근할수록 더 현실해 보였어요.

“무슨 일이니?”

뽕뽕은 그들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걱정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괜찮다. 혹시 물이 있는가? 목마르거든.”

목마른 햄미가 뽕뽕의 커피 잔에 손을 가져다 댔어요. 뽕뽕은 한숨을 쉬며 햄미에게 잔을 건네고는 새 커피를 만들러 다녀갔어요.

“우리 괜찮은데 인간들은 그렇지 않네. 홍수로 인해 동화 박물관을 비롯해 많은 건물이 피해를 입었어. 동네 주민들, 특히 관광과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성이었네. 아름다운 건물이야. 포탑도 있구나.”

햄미가 커피를 훌쩍 읽을 때 로지는 말했어요:

“응, 우리 주인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주 중요한 박물관인데 지금은 부분적으로 파괴되어 있어요. 곧 고쳐지지 않으면 완전히 무너질걸요.”

“지금 인간들이 개조를 위해 돈을 모으고 있어. 그래도 돈을 모으나마나 부족할까 봐서 박물관을 철거하겠다는 말도 많아.”

“응, 그걸 듣고 보니 바로 잼스터들을 생각했어요. 잃어버린 보물을 되찾는 위대한 잼스터족이로서 인간들에게 많이 도와 준데요. 아마 이번에도 도와 줄 수가 있나요?”

“만약에 찾던 보물이 충분하다면 말이야.”

햄미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있었어요. 소식을 들었던 부족은 조용했어요. 뽕뽕왕은 앞으로 걸었어요.

“보물을 수년 동안 모아 보관실에 넣었소. 충분하다고 생각하오. 았다면 꿀스터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어. 그들은 우리 새 우호적이고 인간들에게 또 도와주는 족소.”

그렇게 말한 뽕뽕은 지팡이에 기대며 뽕뽕을 바라보았는데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잼들이 승인하는 듯 중얼거리며 “맞아!”, “인간들을 도우자!” 의 외침이 들렸어요. 그러나 동화 박물관이 어디에 있는지, 보물을 어디로 가져가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폭시, 줌보, 뽕뽕은 높은 염탐하는 능력으로 유명했으니까 이번에도 검색하러 파견되었어요. 그들은 염탐을 통해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 해서 바로 동의했어요. 주민들이 오랜 논의 끝에 낮에 출발하기로 했어요.

17장. 변장. 동화 박물관을 구하기

“변장은 제일 중요한 거야.”

폭시가 손가락을 들으며 말해서 고대 철학자를 닮았어요.

인간의 소지품과 귀중품이 거대한 더미에 쌓여 있었어요. 폭시, 줌보, 뽕뽕이 물건을 잘 조사해서 아기 갈색 코트, 낡아빠진 파란 신발, 노랑 체크 무늬 스카프, 초록 장갑, 커다란 검은 모자를 변장으로 뽑았어요. 그러나 아기 코트조차 잼스터에게 여간 크지 않았어요. 똑똑한 누군가 폭시에게 뽕뽕의 어깨에 올라가고, 줌보는 맨 위에 올라라고 제안했는데 친구들은 그대로 하고 나서 코트는 딱 맞게 되었어요. 맨 위에는 스카프를 두르고 먼지가 낀 모자를 썼어요. 얼굴이 아직도 없었으니까 그 것을 만들기 위해 모자에 눈의 구멍을 두 개를 뚫었어요. 그래서 줌보는 그 구멍들을 통해 볼 수 있었어요.

햄미는:

“검은 모자에

양복을 입고

파티를 위해

서둘렀어요.”라고 어디선가 들었던 노래를 부르며 동네에 갈 신이 났어요.

잼들은 그런 사람이라기보다 허수아비 같은 변장을 보니 낄낄거렸는데 그 허수아비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 이었어요.

뽕뽕왕은 염탐팀에게 “이 변장은 서투르니 조심해요.”

햄미와 로지는 염탐 잼들을 동네로 데려다 가기로 했어요. 동네에 도착하기 전에 잼들은 변장을 써야 했어요.

“로지, 햄미, 집에 떠날 시간 아니지?” 줌보는 작별 인사를 하려고 했어요.”

햄미가 대답했어요

“무슨 말이야? 재미있을 텐데 꼭 봐야 해!”

“아씨... 어이없다!”

로지는 화나게 햄스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지만 역시 친구들과 머물렀어요.

“그럼 갑시다!” 코트 안에서 숨어 있는 폭시가 외쳤어요.”

“가자.” 약간 긴장을 하는 뽕뽕이 덧붙여서 막강한 어깨에 얹은 잼들과 무거운 변장을 메고 목적지로 갔어요.

그는 균형을 맞춰야 줄타는 사람처럼 각각 손에 막대기를 가져 가고 있었어요. 코트 주머니에서 발견되었던 낡은 밧줄의 끝은 햄미의 깃에 묶여 있었으나 다른 끝은 뽕뽕의 막대기에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산책하는 인간인과 애완동물의 변장이 되었어요. 강아지 대신에 가죽 끈에 햄스터도 문제가 안 되었어요. 요즘 애완동물 트렌드는 예측할 수 없지.

로지는 코트의 어깨에 걸터 앉았어요. 볼 만한 것이었다! 허수아비는 잠시 서서 앞으로 나아갔어요. 몇 분만에 새벽 빛이 내리쬐는 가운데 친구들은 동네 길을 따라 걷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인간 사람도 거의 없었고, 허수아비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어요. 어떤 인간인도 그것을 봐서 도망갔어요.

허수아비는 이따금 앞뒤로 흔들거리다가 좌우로 흔들거리며 엉뚱한 걸음으로 걷고 있었어요. 힘들어도 불구하고 뽕뽕은 막대기를 사용하여 균형을 맞추고 다소 고르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하나, 둘, 셋! 줌보입니다. 잘 들죠?”

“셋, 둘, 하나! 잘 듣다. 뽕뽕은 듣지?”

줌보와 폭시는 놀리는 김에 불쌍한 뽕뽕은 모두를 가져야 해서 놀릴 기분이 아니었어요.

“응, 들어. 가는 길 알아?”

“줌보야, 뽕뽕은 가는 길 아냐고 물었어.”

줌보는 눈 구멍을 통해 쌍안경처럼 검사 보았어요.

“응! 아프로 가다가 광장에 세워.”

뽕뽕이 땀이 흐르고 해서 차가운 무엇을 먹을까 원했어요.

“광장이랬어? 아마 아이스크림 살래?”

햄미가 신이 났어요.

“응응! 쉬는 시간이라 사야 돼.”

“크림 브뤼레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로지가 아이스크림 키오스크 에 날아와 주문했어요.

“네, 크림 브뤼레 하나 드릴게요... 앵무새 말대로.”

아이스크림 장인은 하얀 앞치마를 입는 큰 콧수염 남자였는데 깜짝 놀라서 허수아비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어요. 허수아비는 말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동전을 카운터에 떨어뜨렸어요. 아이스크림 장인이 라지 아이스크림 콘을 내밀어 주었어요. 모자를 쓴 색다른 허수아비는 아이스크림을 잡으며 옆으로 물러나고서는 코트에 숨겼어요.

친구들은 아이스크림을 나누며 즉시 먹어 버렸어요. 뽕뽕이 활력을 약간 얻고 나서 물었어요.

“자... 어디로 가야겠어?”

“여기!”

로지는 대답하며 오래된 성처럼 생긴 크고 아름다운 건물을 날개로 가리켰어요. 다양한 포탑,形形色색의 깃발 등이 있는 성은 거대하고 우아했어요. 폭시는 신나게 말했어요.

“수고 많이 했지! 염탐 임무 완수. 이제 숲에 돌아가자. 로지, 햄미! 소피는 아직 안 일어났을 테니 집에 빨리 돌아가야 해.”

“응. 입부 완수.”

마을로 돌아온 잼스터들은 정보를 당장 공유했어요.

한 시간만 안에 보관실에 있던 보물은 다 분류되어 상자에 쌓이고 세워졌어요. 인간들의 반지, 사슬, 팔찌, 브로치, 귀걸이 및 다양한 금과 은 보석이 실명시킬 정도로 밝았어요. 그래서 잼들은 전령을 귀중품도 보내 달라는 메시지와 함께 꿀마을로 파견했어요.

꿀들은 일사천리 도착했는데 두 부족은 밤새도록 귀중품을 숲에서 동네로 가져가고 있었어요. 동네에서는 그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활동했는데 수리가 시급한 성의 홀 중앙에서 모든 보물을 상자에 넣었어요.

보물을 넣은 끝에 잼스터와 꿀스터들이 눈에 띄지 않게 동네를 떠났는데 숲 가장자리에 와서 작별 인사를하고 집으로 흩어졌어요.

18장. 인간은 숲주민들의 도움보다 기적을 더 믿는 법

단풍철이 왔어요. 숲 잔디밭에서는 같은 인간 가족 아빠, 엄마, 빅터, 소피가 쉬고 여가를 만끽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최근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나누려고 했어요.

홍수 피해를 입은 동화 박물관에서 기적으로 대박이 발견되었어요. 어떤 알려지지 않은 후원자가 수리를 위해 큰 보석을 기부했어요. 저 사건이 신문에 나올 만큼 특이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아이들이 바로 궁금해졌어요.

“아빠, 저 보석은 잼스터가 가져왔지?”

“아니면 꿀스터?”

엄마가 아이들을 껴안으며 웃었어요.

“그런 동물은 진짜가 아니지. 하하하!”

“동물이라서 그렇게 똑똑할 수 있겠어?”

아빠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어요.

아이들은 다시 놀려고 도망갔는데 잠시후 빅터는 놀라게 외쳤어요.

“엄마! 아빠! 여름에 잃어버렸던 트럭 찾았어요!”

그가 트럭을 들어 부모님께 흥분히 보여 드렸어요.

“넌 트럭을 잃었고 잼스터가 훔치지 않았지!”

엄마가 놀리는 가족을 보며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저녁에는 잘 쉰 아이들과 부모는 차를 타고 동네에 떠났어요.

차가 시야에서 사라졌을때 큰 덩굴에서 숨어 있는 폭시, 줌보와 뽕뽕 잼친구들이 밖으로 나갔어요. 폭시는 멀리 가는 차를 바라봐서 옷을 곤게 찢어요.

“헐. 우리에게 대해 아무도 알지 못할 거야.”

그렇게 말한 폭시는 친구들의 얼굴을 봤어요.”

“숲에 숨어있는 비밀 영웅들.”

줌보는 자랑스럽게 그랬어요.

“명성 꼭 중요하지? 인터뷰, 사인, 팬들... 단점 밖에 없다.”

뽕뽕이 말해서 폭시는 찬성했어요.

“응, 맞아. 지금으로선 눈에 띄지 말자... 자, 대박 찾을까?”

줌보와 뽕뽕은 적극적으로 고개를 끄덕여서 몇 년 동안 해온 것처럼 인간이 쉬고 있었던 곳으로 보물 찾으러 갔어요.

폭시는 보물을 찾다가 롤리팝을 발견했는데 친구들이 못 보는 동안 기쁨으로 롤리팝을 안 할알 수가 없었어요.

끝

번역을 도와 주신
쿠브락 예카테리나에게 감사드립니다.
작가팀, 2022